

득점과 우세의 개념 정비

-심판과 코치간의 통일된 개념위해



새로운 판정지침에 대한 심판교육 (90. 9. 22)

대한태권도협회는 71회 전국체전(충북 제천)을 대비하고 경기장내 고질적 병폐인 판정시비의 불식을 위해 심판과 심판, 심판과 코치간의 득점, 우세 개념을 정비키로하고 3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새로운 판정지침을 발표하였다.

그간 타격의 강도에 따른 시비가 많았다고 판단하고, 새로이 발표한 판정 지침은 '득점은 후하게, 벌칙 적용은 엄하게' 시행할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판정시비의 주요인이 심판들간에도 득점, 우세의 규칙적용에 통일성이 결여되어있고, 심판과 코치들간 그 기준이 서로 다른데 있다고 판단하고 심판과 코치들에게 각각 설문지를 받고 간

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로써 득점채점에 있어 주로 소리에 의한 청각 중심의 강도 측정이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다소 강도가 약한 타격이더라도 정확한 공격이 이루어지면 득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우세의 기준이 돼왔던 "경기의 주도권"을 득점부위에 대해 공격을 많이 한 자로 지침을 정했다.

협회는 그간 경기장 질서 문란현상의 표본이 돼 온 전국체전부터 이 지침을 엄격히 적용키로 하고, 상임심판원들에게 수 차례의 교육을 시키고, 9월27일 전국의 시도 전무이사과 전국체전코치들을 국기원으로 초청,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가능한 규칙 적용을 쉽게 하고, 관중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이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얼굴 부위의 득점

“얼굴부위에 가한 공격은 강도보다는 정확한 타격이면 득점으로 인정한다”

얼굴부위에 대한 공격은 그간 강도와 금지부위(뒷머리)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다소 강도가 약하더라도 허용부위에 정확히 맞으면 득점으로 인정기로 하였다. (예 : 머리보호대가 벗겨지거나, 돌아가는 경우)

그리고 허용부위와 금지부위가 겹쳐 맞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귀부분과 뒷머리가 같이 맞는 경우 등) 단, 얼굴부위의 득점인정이 다소 완화된 만큼 잡고 차는 등 금지 행위를 이용한 공격은 벌칙을 즉시 엄하게 적용한다.

2. 몸통 부위의 득점

1) 득점부위에 정확한 타격이 가해져 충격이 인정되면 소리가 나지않아도 득점으로 판단한다.

2) 득점부위와 허용부위에 함께 걸친 타격도 득점으로 인정한다.

3) 주먹공격은 강도높은 단일공격인 경우 득점으로 인정한다.

몸통부위에 관한 득점 인정은 그간 주로 소리에 의존함으로써 뒤차기나 옆차기 공격이 거의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득점부위에 대한 정확한 공격은 다소 강도가 약하더라도 득점의 기준을 완화기로 하였다.

또한 몸통 허용부위에 대한 공격의 득점인정여부에 대해 득점부위와 허용부위가 함께 맞는 경우 득점으로 인정기로 하였다.

주먹공격은 거의 득점 인정과 거리가 멀었으나 향후 금지행위를 이용하지 않고 바른 자세에서 충격이 인정될 정도의 강한 단일공격일 경우 모두 득점으로 인정기로 하였다.

3. 우세의 기준

1) 우세를 “경기의 주도권”으로 판단한다.

2) ‘주도권을 가진자’의 판단은 “공격의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득점부위에 대하여 많이 공격한 자”로 한다.

그간 우세의 기준은 “선제공격을 많이한 자”로 하여 공격의지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단순히 발만 먼저 드는 개념으로 오용되고 있어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전진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우세가 아니고 득점에 가까운 위력적인 공격을 많이한 자가 우세로 판정된다. 단, 상대선수를 견제하기 위해 앞발을 들고 전진하거나 상대의 발공격을 차단하는 행위는 방어개념으로 해석하여 공격기술에서 제외한다.

4. 우세의 판정

1) 우세의 판정은 득·감점과는 별도로 회전별 10점 만점제로 주심이 평가한다.

2) 매회전 종료후 즉시 채점하며, 3회전 통산하여 점수가 많은 쪽을 우세승으로 한다.

3) 우세한 자를 10점, 약간 열세한 자를 9점, 약간 열세도 뚜렷이 열세도 아닌 상태를 8점, 뚜렷이 열세한 자를 7점으로 채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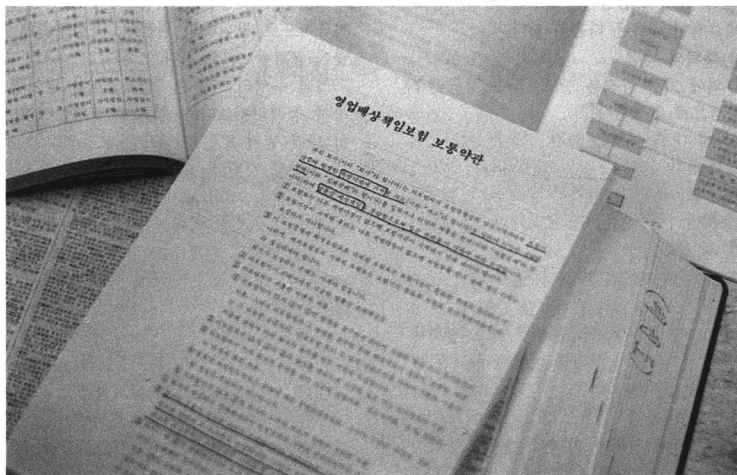
4) 3회전 총점이 동점인 경우 3회전중 큰 편차를 낸 자를 승자로 한다.

주심의 우세 판정의 내용은 새로 개발된 ‘우세 채점기’에 의해 공개되며 3회전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한 회전이라도 큰 편차를 낸 뚜렷이 우세했던 선수에게 우세승을 주도록 하였다.

협회는 이 지침을 발표하며 『우리 경기규칙이 갖고있는 다소 애매한 부분, 또한 시비의 가장 큰 불씨가 되는 득점과 우세 부분에 대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결국 열쇠는 심판원들이 규칙을 얼마나 공정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태권**

체육도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최근 각 도장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가입 안내 공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달되고 있다.

줄게 표현해서 보험가입 안내 공문인지 내용은 이행않을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게된다는, 다소 겁(?)을 주는 통고 형식이다.

이것을 받아들은 사범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소규모 시설업으로 분류됐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범부터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부분만 해당되는 이 보험자체가 전혀 혜택이 없다'는 사범, 그래도 과태료보다는 보험료가 싸니까 가입한다는 사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범 등 실로 의견이 분분하다.

심지어 지역 단위로 연대서명하여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보낸곳도 있다.

도대체 왜 난데없는 보험가입 문제가 속을 썩이는가?

발단은 1989년 7월1일자로 공포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 경영과 관련하여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 이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체육부령)제12조(보험가입 등)에는,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

은 이용객의 피해보상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사법들이 갖는 불만들을 파악해보면,

첫째, 태권도장같은 소규모 업종이 어떻게 불링장이나 정구장, 미용체조장, 롤러스케이팅장과 같은 대규모 업종을 제치고 강제가입대상에 포함되었는가.

이는 강제가입대상과 임의가입대상의 종목들을 면면히 살펴 보면 태권도 시설이용자들의 위험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종목의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들 지적한다면 그것은 법령입안자들의 무지 내지는 탁상행정으로 탈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주로 맨몸만을 이용해 교육시키는 태권도 종목에 시설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만을 보상해 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물론 체육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만을 지정해서 시달한 것은 아니다.

체육부는 『보험가입제도는 체육시설업자와 시설 이용자 양 측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을 전제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손해관련보험, 기타 종합보험 등 체육시설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내용이 포함된 손해보험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이 중 해당 체육시설업자가 각자의 여건(경영규모, 피해발생율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한 보험 및 보상한도금액, 보험조건, 보험회사 등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고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이다.

셋째, 그러면 태권도장에서 사실 '시설로 인한' 사고는 별로없다. 겨루기 등 수련 중 사고를 보상해 줄 방법은 없는가.

물론 가능하다. 다만 돈이 더 드는 것이 문제다. 한 보험회사 담당자는 말한다. 『그러한 경우 일반상해보험으로 가능한 하지만, 그것은 수련시간 뿐 아니라 그 수련생의 24시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올라간다.』

물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추가특약중 '구내(區內)치료비 담보 추가특별약관'같이 '시설내에서의 사고'를 보상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옵션(option)이라 그만큼 보험료는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될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혀 부정적이지만도 않은것은 『아직 체육시설에 관련된 영업배상책임의 민사상의 관계가 흔치않아 가부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태권도장도 보호구부터 마루바닥에 이르기 까지 시설과 관련된 상해의 경우가 다양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또 체육시설업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업계는 현재 체육시설업의 특성에 맞는 영업배상책임보험특약중 "체육시설업특별약관"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기타, 10만원 미만의 배상관계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않는데 이를 5만원정도로 내려 달라거나 하는 소수의견에 대해 보험회사는 『10만원미만의 사고에 대해 보상않거나, 10만원이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10만원의 부담을 주는 것은 이 보험의 일반약관에 나와있는 손해방지의무(제13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일뿐』이라고 변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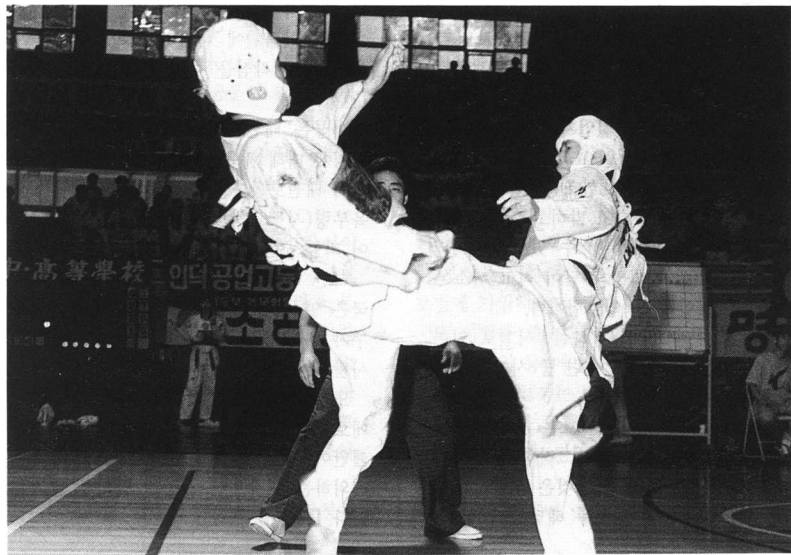
아 물론 태권도장을 강제가입대상에서 빼달라는 요청에 대해 체육부는 『법률시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태권도장만을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체육부령(시행규칙)개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피할 수는 없는 실정인 듯.

다만 대한태권도협회의 건의를 받은 체육부 당국은 일선 지방행정 담당과에 보험가입을 단속위주가 아닌 홍보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공문을 시달한바 있다.

또한 향후 보험가입제도 시행 1년간 일선도장의 애로를 수집하고, 보험제도의 성과를 파악하여 그 폐단이 크면 태권도장을 보험가입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체육부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태권**

국내대회 소식

- … 국내 태권도 대회중 가장 전통이 깊은 대한태권도 협회장기 대회가 25회를…○
- … 마지막으로 중고연맹전과 분리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26회대회를 부산에서 치…○
- … 루었다. 중고연맹에서는 신설된 제1회 체육부장관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 한…○
- … 영중 대원여중 관악고 인천체고가 남녀 중고등부 우승을 차지해 처녀우승기 …○
- … 를 가져갔다. …○
- … 또한 국민학교연맹이 주최한 제11회 체육부장관기대회에는 전국 64개교에서…○
- … 600여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루었고 경희대와 연세대가 주최한 총장기…○
- … 대회에는 남녀고교선수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졌다. …○



제26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 타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7. 30 - 8. 4, 부산 구덕체육관)



강원식전무이사가 대학일반우승을 차지한 동아대의 김우규 감독에게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

각종 국내 태권도 대회 중 가장 전통이 깊은 대한태권도협회장기대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26회를 맞았다.

1963년 중·고등·대학의 3개부로 시작된 이 대회는 76년부터 89년까지 중·고 연맹에서 남여 중·고등 4개부로 주관하며 중고등학교 태권도의 경기력 향상과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이 대회를 대통령기와 더불어 태권도 단체대항전의 양대축으로 삼아 각 팀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로 하고 금년부터 남녀 대학 및 일반의 2개부를 증설, 전체 6개부로 직접 주관키로 하였다.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부산 구덕체육관에서 개최된 이 대회는 장마끝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6개부로 총123개팀 849명의 선수가 참가해 성황을 이루



여자 대학·일반부 우승을 차지한 성신여대

었다.

남자 대학·일반부에는 한국체대, 현대자동차, 체육부대가 불참함으로써 동아대(금5, 은1, 동2)가 예상한 대로 쉽게 우승을 거머 쥐었고 고등부에서는 서울체고(금2, 동2)가 홈팀인 부산체고(금1, 은2, 동1)의 막판 추격을 힘겹게 따돌리고 우승을 하였다.

중등부에서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경수중(금2, 은2)이 강호 동성중(금2)한영중(금1, 은1, 동2)을 누르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한편 3개부 총23팀 145명이 참가한 여자부는 화려한 우승기와 트로피, 메달에 비해 참가자의 수가 적어 열기가 반감된듯.

고등부는 13개팀 86명의 선수가 참가해 면모를 제법 갖추었으나 중등부와 대학 일반부는 총 19개 체급 중 3개 체급이 유산되었고 그나마 나머지 16개 체급도 총 메달 64개에 참가선수 59명인 기현상이 벌어져 우리 여자 태권도계의 심각한 현실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성신여대(금3, 은2, 동2), 인천체고(금2, 은4, 동1)와 대원여중(금5, 은2)이 각각 우승.

관 중 석

체중조절에 혼신

이번 대회는 보경적인 피서철과 겹쳐 임원과 각 팀

의 관계자가 모두 연일 35°가 넘는 폭염 속에서 애를 먹었는데.

특히 선수들은 밤에도 30°를 넘는 열대야 현상 때문에 체중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자고나면 1kg씩 빠지는 바람에 계체실 앞에는 다 큰대회와 달리 '물먹은소(?)'들이 '뛰어다니는 소'보다 훨씬 많았는데.

어쨌든 체중이 오버됐던 선수들은 편했던 대신 적정 체중을 유지했던 선수들은 미달된 체중을 복구하느라고 희비가 엇갈려.

부자(父子) 한마음

남자 중등부 경기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뛰어난 길을 모았는데.

핀급에 출전한 광주복성중(1년) 채익기 선수와 코치로 나온 아버지 채희철씨(41세·광주 중흥체육관 관장)가 그 주인공.

중앙대회에 치너 출전한 채선수는 아버지의 열띤 작전지시에 힘입어 21명이 참가한 중등부 핀급에서 은메달에 입상.

4살 때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배웠다는 채선수는 중앙대회 경험은 없지만 세컨석에 아버지가 있어서 심적 부담없이 마음껏 기량을 펼 수 있었다고. **태권**

제2회 경희대학교 총장기타기 전국남녀고등학교 태권도 대회

(7.1~4, 국기원)



남자부 단체시상식, 우승 동성고/ 2위 숭실고/ 3위 리라공고

경희대학교 주최로 개최된 제2회 경희대학교 총장기타기 대회에는 전국의 남녀고등학교에 재학중인 912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지난해 7월 태권도의 장래를 짚어준 고교선수들에게 경기력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출발한 이래 두둑을 맞게된 본 대회는 참가규모면이나 대회운영면에서 보다 향상된 면모를 보여주었다.

참가현황을 보면 남고부가 67개교에서 724명 여고부가 35개교에서 188명이 출전했는데, 특히 남고부의 편급에는 155명의 선수가 출전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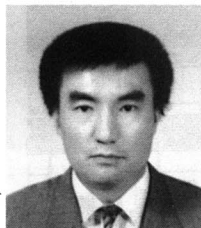
한편 본 대회의 3위이상 입상자에게는 문교부승인 체육특기자 자격부여와 남녀 최우수선수에게 경희대 태권도학과 입학특혜 및 장학혜택의 특전이 부여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대회보다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다.

이번 대회에서 동성고와 인천체고가 단체우승을 차지했고 우수선수상은 리라공고의 주의홍과 오산여중고의 유수진이 각각 영예를 차지했다. 또한 지도상은 단체우승을 차지한 동성고의 김세혁코치와 인천체고의 양기모코치에게 수여되었다. **태권**

제11회

체육부장관기 타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

(7. 14-15, 국기원)



박재룡

(국교연맹 사무국장)



우승을 향하여 힘차게 발을 뻗으며...

뜨겁게 솟아오른 태양과 숨막히는 더위를 뚫고 제 11회 체육부장관기타기 전국국민학교 태권도대회가 7월14일과 15일 이틀간 국기원에서 전국64개교 600여명의 선수 어린이가 출전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역대 체육부장관기타기 대회중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된 개회식에서 고도찬(본연맹이사)대회장은 『겨레의 새싹이요 보배인 어린이의 손에 나라의 발전과 번영된 미래가 달려 있으며, 21세기 국기태권도의 주역은 선수 어린이여러분이므로 항상 자부과 긍지를 가지고 수련과 학업에 매진하여 훌륭한 한국인이 되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연맹 임정대회장은 『많은 청중의 찬사와 갈채를 받는 좋은 오케스트라는 한두 악기의 소리에 의해서 연주될 수 없듯이 개인의 기득권이나 욕심, 매명을 버리고 심판, 경기요원, 임원, 코치, 선수 모두가 혼연일치되어 연맹설립목적을 회생과 헌신으로 구현한다면 보다 높은 차원의 대회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본 대회에는 소련의 체육관계자들이 참관하였는데 서울미동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시범이 시작되자 감탄과 함께 큰박수를 보내주기도 했다.

겨루기부분에 출전한 선수들은 14일과 15일 오전 7시에 계체를 2회 실시하여 계체에서의 불합리성을 최소화 시켰다.

본대회는 계급별 1명씩 5계급 이상을 단체로 인정하여 토너먼트식 방법을 채택하여 개인점수를 1위 8점, 2위 4점, 3위 2점으로 단체순위를 정해 남자부는 청주한벌국민학교, 여자부는 서울강덕국민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의 최우수선수상은 청주한벌국민학교의 유인평선수가 차지해 상장과 메달을 비롯해 부상으로 32만원 상당의 영어회화테이프 교재(에임스제공)와 푸짐한 선물을 받았다. **태권**

제1회 체육부 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태권도 대회

(8.20-25, 잠실학생체육관)



김부영

(중고연맹 홍보이사·고려중 체육주임)



이유생회장이 남교부우승팀인 관악고에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

금년은 여러가지로 기억에 남을 한해였다. 봄부터 내린 비로 보기 드물게 많은 강우량을 나타내다가 했더니 무더위 또한 긴장 장마에 심술이라도 난 모양으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더니 예년에 보기 드문 무더위로 모든 사람을 지치게 한것 같다. 하지만 우리태권도 선수들은 인내와 필승의 신념으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오로지 오늘을 기다리며 많은 땀을 흘리며 노력해 왔다. 25회라는 적지 않은 연륜을 거둬하며 알찬 성장과 많은 선수들을 배출한 협회장기 대회는 25회를 마지막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새로운 대회를 맞이하여 새출발을 하게 되었다. 회장과 임원들의 노력 끝에 체육부의 정책 종목으로 인정을 받아 새로운 각오와 커다란 희망을 안고 제1회 체육부 장관기 쟁탈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

도대회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8월20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성암여성 고적대의 파파레가 힘차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6일간의 대회가 시작되었다. 전국 각처에서 모인 많은 선수들의 넘치는 모습 또한 대회 분위기를 한층 실감나게 하였다. 이유생 회장은 대회사에서 『2,000년대를 향해 태권도는 무도와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정립하여 내실을 키워나가야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 하였고, 김운용 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체육부 장관기대회가 신설되어 태권도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동성 체육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이제는 태권도가 세계140여개국에 보급되어 세계인이 애호하는 국제적 운동종목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자랑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한영중



메달을 목에 건 입상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

스럽게 생각하며 전국의 남녀 중,고등 학생들이 참가하는 학생대회인 만큼 학생선수답게 모범적이고 투지넘치는 경기내용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이번 대회는 참가학교 156개교에 참가선수 1,502명이라는 대회참가 현황에서 나타나듯 어느종목 어느대회에 손색이 없는 대규모 대회를 보여 주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계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아가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선수들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해왔으나 이제는 양보다 질을 택하여 선수들의 자세와 기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선수들 자신과 지도자 모두의 책임과 임무이며 이것만이 태권도 발전의 지름길이라 생각된다.본대회를 통해 보다라도 이제 우리태권도 선수들의 기량이 팀에 관계없이 평준화 되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본다.늦은감이 있지만 협회에서는 발생이 많던 심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임 심판원제를 만들어 좋은평을 받고 있다.특히 심판관정에 큰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꾸준한 노력으로 방법을 개선하면 많은 발전이 올 것으로 본다.

한편 아직도 응원단이나 관중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대회 중 학부모의 난동으로 경기가 잠시 중지되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선수, 팀, 감독, 소관자 등에게 처벌을 내려야하는 상황까지 있었다.

앞으로 그러한 행동은 삼가되어야하고 경기장 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문화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이번대회에 MBC방송국에서는 결승 경기를 TV중계방송으로 태권도 홍보에 앞장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고 비인기 종목으로 국내에서 외면을 당하던 경기가 이번대회 기간중 각 일간지에 연일 게재되어 태권도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기 태권도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태권**

컴퓨터 채점기의 도입, 판정시비 해소에 많은 도움 줄 것



김현준

(민주일보 체육부 기자)

태권도 유도 레슬링 등 격투기 종목이 주 담당인 나는 경기장을 출입할 때마다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광경을 종종 보곤 한다.

옷소매를 걷어 부치고 샅대질까지 해가며 언성을 높이는 일은 예사고 심지어 폭력사태로 번지기 까지 한다.

그리 불쌍사나운 장면은 아니나 본능적으로 다가가 이들의 실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선수끼리 서로 몸을 부대껴야 승패가 나는 격투기 종목의 특수성에 기인된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도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또한 이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내용을 보면 누가 옳다 그르다를 선뜻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감독, 선수의 판단이 정확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심판의 판단이 옳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기장 풍토는 원인과 결과를 무시한채 심판 판정의 불복시에는 무작정 감독이나 선수들만이 그릇됐다고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얼마전 복싱을 담당하는 동료기자가 부친상을 당해 결근을 하여 대타로 그 경기를 취재하러 나간 일이 있다.

접전을 벌이던 경기는 1회전이 끝날 무렵 한 선수의 RSC승으로 끝났다.

레프리가 경기를 중단시키고 RSC승을 선언하자 링 주위에서 심판을 보던 5명의 심판들 입에서는 일제히 안도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같은 일은 아마추어 복싱 경기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유는 한가지 자신들이 채점한 데 따른 책임을 추궁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아마복싱은 경기 중간에 KO, RSC, RET등 한쪽 선수가 일방적으로 물러 경기가 끝나지 않는 한 5명의 심판이 채점을 하게 된다.

그런데 5명의 심판이 채점한 점수가 5대0으로 한 선수에게 몰리거나 3대2의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나면 별 상관이 없지만 4대1로 판정이 나면 문제는 복잡해 진다.

4대1이란 점수는 5명의 심판 가운데 4명은 A순수가 우세했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유독 한 심판만 B

전태권도인은 갓 태어난 컴퓨터 채점기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좀더 과학적이고 또 태권도 고유의 멋을 잃지않는 방향에서 슬기롭게 이 기계의 활발한 사용을 모색하여야할 시점이다.

선수가 이겼다고 채점을 한 것이다. B선수에게 점수를 준 심판은 오심(?)에 대한 추궁을 당하게 된다.

복싱 심판들 사이에서는 이를 '별달았다'고 하는데 하루에 2번 이상 별을 달면 다음날의 심판 배정에서 빠지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4대1 판정이 났더라도 소수의 1쪽의 심판이 아무런 외부의 입김없이 소신껏 본 것이라면 오히려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한다.

이런 판정상의 난맥을 해결기 위해 복싱연맹은 지난 6월 컴퓨터 채점기를 선보인바 있다.

복싱강국 소련이 처음으로 시도를 한 컴퓨터 채점기는 정확히 말하면 계산식 채점기라 할 수 있다.

종전처럼 5명의 심판이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데 한 선수의 가격이 성공했을 경우 5초 이내 5명의 심판 가운데 과반수(3명)이상의 심판이 버튼(파란색 혹은 빨간색)을 누르면 1점이 올라간다.

그러나 복싱의 컴퓨터 채점기는 복싱에서 가장 중요한 '펀치력의 강도'를 가려 낼 수 없다. 가벼운 잭이나 통렬한 스트레이트나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 채점기 도입으로 복싱경기장의 판정시비가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국기'라고 자부하는 태권도의 경기장 풍토는 어떤가. 판정시비가 전혀 없다는 말인가. 나는 유감스럽게도 고개를 끄덕이고 싶지 않다.

국내 체육의 어느 조직보다 방대하고 두터운 선수층을 확보하고 있는 태권도도 복싱과 비교해 별로 나은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

태권도를 담당하지 7개월 밖에 안되는 태권도인으로 치면 7급짜리 밖에 안되는 내가 태권도에 대해 뭘 알아서 큰소리나고 하면 할말은 없다.

그러나 세살먹은 어린아이도 알수 있는 비상식적인 경기진행 방식, 예를들면 대규모 선수의 참가로 시간과 회전수를 단축하는 행위, 심판 판정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지도자 자격 박탈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높으신 분들의 업포성 호령등 많은 사례를 목격한다.

물론 대회 관계자들은 짧은 일정에 많은 선수들의 경기를 소화하고 지방 거주 선수들에게도 중앙에서 열리는 시합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론' 등 그럴듯한 변명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러나 경기란 규정된 룰에 따라 엄선된 심판아래 경기력을 제대로 갖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가 권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태권도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니 참가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경기방식은 태권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물론 이같은 사례는 주로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는 중·고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서 볼 수 있다.

앞서 복싱에서도 언급한 컴퓨터 채점기와 유사한 태권도 컴퓨터 채점기가 1차래의 고정단계를 거쳐 지난달 재차 선보인바 있다. 아울러 대등한 경기를 판정할 때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 매라운드마다 우세정도를 주심이 직접 평가하는 주심 채점기도 같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태권도 컴퓨터 채점기도 복싱과 마찬가지로 판정시비를 없애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정적 측면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태권도의 가장 큰 매력인 호쾌하고 큰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가 불리함을 당할 소지가 많다.

작은기술이나 큰기술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 채점방식은 판정시예의 편리함을 꾀하는 일로만 보인다.

또 그간 태권도인이 꾸준히 주창해 오던 바는 태권도 관중이 즐기는 태권도에 역행하는 일면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채점기의 도입과 실행은 태권도의 판정시비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아무쪼록 전태권도인은 갓 태어난 컴퓨터 채점기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좀더 과학적이고 또 태권도 고유의 멋을 잃지않는 방향에서 슬기롭게 이 기계의 활발한 사용을 모색하여야할 시점이다. **태권**

태권도 소식

대한태권도협회

월드컵태권도대회 한국대표선수단 파견

세계 태권도 강국들이 모여 열전을 펼치게 될 1990년도 남녀 월드컵태권도대회가 11월 9일부터 11일 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다.

대회 참가규모는 조직위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남자 16개국, 여자 9개국이 될 예정인데 대한태권도협회는 대표선수단에 예조해감독을 비롯한 임원6명과 남녀 국가대표 16명을 파견한다. 대표팀 파견에 앞서 협회에서는 열흘간의 강화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월드컵대회 파견 대표선수단 명단

단장 : 미정

감독 : 예조해(경북협회 전무이사)

남자팀코치 : 유수철(리라공업 학교교사)

남자팀트레이너 : 윤오남(조선 대학교교사)

여자팀코치 : 김영희(서울지하철공사감독)

여자팀트레이너 : 윤준철(부평 고등기술학교교사)

(선수명단)

△남자부

핀급 : 김인경(성동고)

플라이급 : 김철호(현대자동차)

밴텀급 : 함준(현대자동차)

페더급 : 하태경(한국체대)

라이트급 : 양대승(한국체대)

웰터급 : 이현석(동아대)

미들급 : 박은석(전남협회)

헤비급 : 김광섭(국군체육부대)
△여자부

핀급 : 유수진(오산여중고)

플라이급 : 진용순(광명상고)

밴텀급 : 박동선(성신여대)

페더급 : 박선영(경희대)

라이트급 : 박정희(인천체고)

웰터급 : 이성미(상명여대)

미들급 : 양인덕(상명여대)

헤비급 : 백영미(경희대)

컴퓨터채점기 합격 판정 — 2차 평가회 —

지난 6월30일 개발 완료한 태권도경기 컴퓨터 채점 시스템이 합격 판정을 받고 실용단계에 접어들었다.

협회는 7월4일 1차 평가회에서 지적된 결점을 보완하고 8월31일 국기원에서 2차평가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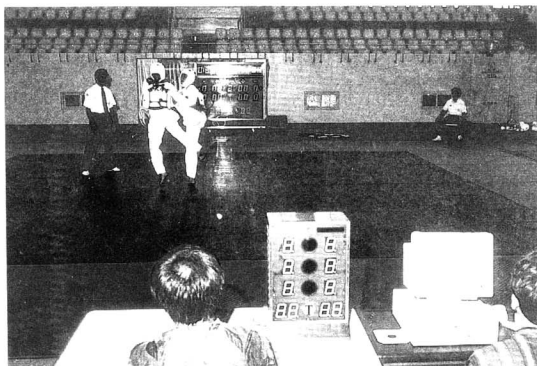
이날 평가회에는 경희대, 한국체대, 체육과학대 등 3개 대학을 초청, 실제 경기를 치루었는데 8체급 24개임을 통해 합격판정을 받음으로써 국내경기에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협회는 금년도 마지막 대회인 우수선수 선발대회에 이 컴퓨터 채점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1대를 더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우세 채점기 개발 전국체전부터 사용

협회는 태권도경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우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우수채점기를 개발하고 금년도 전국체전부터 사용키로 하였다.

8월31일 컴퓨터채점기 2차평가회에서 첫 선을 보인 이 우수채점기는 주심이 매회전을 10점 만점



우세채점기

제로 우세내용을 수치화하여 공개
토록 제작된 것이다.

협회는 우세의 기준을, 약간
열세인 경우 10:9, 약간 열세이
거나 현격한 열세가 아닌 경우
10:8, 현격한 열세 10:7로 정하
고 매회전 주심이 채점하여 우
세를 결정기로 하였다. 3회전을
통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3회
전중 큰 점수차로 경기를 이끈
자를 우세승으로 정하기로 하
였다.

이 채점기는 3회전 통산 우세결
정 방식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은 고된 훈련을 통하여
정신력과 체력을 다지며 전국체전
10연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신도림 국교 어린이 시범단 마카오방문

마카오 검찰청 이 동섭 사범의
초청으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신도림 국민학교 어린이 태
권도 시범단 일행(단장 홍 종관이
사 의 임원 5명.선수 김 동성 외

19명)이 마카오를 방문했다.

이들은 태권도 연무 시범을 통
하여 민간외교 역할과 태권도 국
제화에 공헌한 후 홍콩을 경유하
여 입국했다.

7.8월 승품단 심사대회개최

서울시협회는 7·8월중에 4차
례의 승품단심사대회를 개최하여
총4,84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
다.

7월8일과 22일, 8월 26일에 열
린 3차례의 승품심사대회에는 1,
116명, 1585명, 1452명의 유품자
를 각각 배출했다. 또한 8월19일
에 개최된 승단심사대회에는 691
명이 승단했다.

상조회 - 사범들의 경조사에 일조

서울시내 등록도장 사범들의 경
조사에 일조를 하고 있는 상조회
의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1987년 1월에 서울시협회 회원
의 복리증진, 상부상조, 상호친목
을 도모하기위해 발족된 상조회는

서울특별시협회

전국체전 일반부대표 공수부대 위탁훈련

서울시협회에서는 제71회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일반부선수들
의 정신력 강화를 위해 9월 10일
부터 15일까지 6일간 특전사령부
특전교육단에서 공수훈련을 실시
했다.



신도림국교어린이 시범단

태권도 소식

그동안 유족부조금, 경조금, 회원의 친목에 관한 사업을 지원해왔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협회 상조회를 통해서 축의금이 8명에 240만원, 입원비 등을 포함한 조의금이 30명에 1,110만원으로 총 1250만원이 전달됐다.

〈서울시 박노규·김중오 편집위원〉

부산직할시협회

태권도가족 체육대회

부산의 300여 체육관에서 선수와 학부모 등 약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태권도 가족 체육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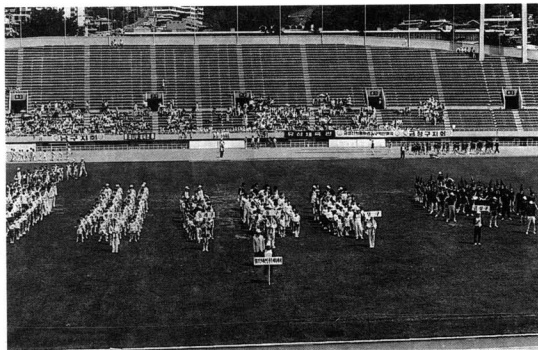
최용수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인정과 샘물을 마시며 사랑과 화합의 끈을 매는 이자리에 즐거움을 나누게 되어 흐뭇한마음 금할길 없다』고 말하고 『높고 푸른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을 모두 열어 사회와 국가의 받침돌이 되어서

큰 그릇에 담은 작은 행복이 아니라 작은 그릇에 소복이 채워지는 알찬 행복을 찾아 영원히 추억되게 간직하고 싶다』고 말하고 『승리를 위한 목적보다는 진정한 화합과 단란을 묶어서 상부상조하고 우정의 승리를 찾는 사랑의 자리가 되도록 열심히 뛰고 달려보자』고 하면서 즐거운 하루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경기는 각 지회별로 초, 중, 고, 일반, 학부모형, 관장부로 나뉘어 육상 100미터와 400미터 계주가 있었으며 또한 학부모형 달리기와 지회별 관장축구시합으로 열전예 들어갔다.

매 경기가 시작될 때마다 각지회 응원석에서는 열띤 응원과 함성이 터져 나왔으며 선수 모두가 각지회의 명예를 위해 한지라도 뒤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구슬같은 땀을 흘리며 달리는 모습이 대견스럽게 보이기도 하였으며 특히 어머니 달리기에서는 소속지회의 우승을 위해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뛰는 모습에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달리기대회 참가자에게는 기념



태권도 가족 체육대회 개회식 모습

품이 주어졌고 전 참석자들에게는 경품을 하여 각종 상품을 나누어 주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태권도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졌다.

제71회 전국체육대회 부산대표 선발대회 겸 제6회 협회장기타기대회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구덕실내체육관에서 71회 전국 체육대회 부산대표 선발대회 겸 제6회 협회장기타기태권도 대회가 국민부로부터 여자부까지 6개부에 약 50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회에 앞서 최용수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많은 선수와 부산태권도 가족이 한데 모여 이렇게 성황리에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오늘 이 대회가 제71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부산의 대표를 선발하고 제6회 협회장기타기 대회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기량의 선수들이 대거참여, 태권도 관계자와 관중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뜻깊은 대회라고 말하고 선수들은 평소수련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경기의 참모습을 보여 달라고 하였다.

유난히 무더운 더위속에서도 선수들은 아랑곳 하지않고 저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늠름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각부 체급별 우승자를 보면 국민학교부(8체급) 김현민 정용섭 조남중 강석진 김봉섭 변삼곤 구용훈 김석, 중등부(11체급) 송기근 홍경수 김인연 최철환 김광현 김민우 전상기 남택민 김지훈 김귀수 모중준, 고등부(8체급) 김태훈 이영진 김용일서형덕 서병선 임영

호 한갑석 김송남, 대학부(8체급) 박재환 이해진 서정필 김태호 이종학 이정기 정원일 손동익, 여성부(8체급) 오윤경 박성자 강정선 박추경 박집숙 정현주 함선미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대구직할시협회

선수미등록자 태권도 대회 개최

일선도장에서 심신연마를 위해 태권도를 수련하는 수련생들에게 태권도 기량을 겨루는 기회를 제공코자 1988년도에 창설한 대구시 비등록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지난 8월 17일 대구실내 체육관에서 제3회 대회를 치루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여자부 등 5개부로 나뉘어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 총150명의 수련생들이 참가해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는 가운데 수련생들간의 우의와 화합을 다졌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는 추가로 선수등록의 기회를 제공, 대구직할시협회장기 겸 여자부 체급별 개인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졌다.

제3,4차 승품단 심사대회개최

대구직할시협회는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친 승품단 심사대회를 통해 총2,62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7월 1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3차대회에는 총1537명이 합격

했는데 품단별로는 1품 818명, 2품 293명, 3품 43명, 4품 14명, 5단 11명이다.

또한 8월 31일에 열린 4차 대회에서는 1품 579명, 2품 208명, 3품 36명, 1단 147명, 2단 59명, 3단 33명, 4단16명, 5단 6명 등 총 1,084명이 합격했다.

<대구 김영곤 편집위원>

대전직할시협회

브루키나 파소 김선공 사범 고향방문

아프리카 브루키나 파소 국의 김선공 사범(6단)이 9월3일 귀국해 고향인 대전을 찾았다. 김사범은 86년 11월 출국, 기후, 언어 등 여러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검은 대륙에 국기태권도의 뿌리를 내리는데 이바지했다.

그곳에서 경찰, 군인, 대학생



등 1,000여명에게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는 김사범은 그동안 유단자 100여명을 배출시켰단다.

브루키나 파소오국은 아프리카 농업국가로 국민1인당 연간소득 190불로 저개발국가이다.

이나라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

태권도 소식

로 북한에서는 국제 태권도연맹소속 격술 사범이 4명이나 파견돼있기도한 곳이다. 처음에는 다소 그들의 텃세에 불리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정통 태권도의 고난도 기술 및 동양 무도정신이 알려지면서 태권도의 인기는 매우 높은편이라고 한다.

효성이 지극하기로 소문난 김사범은 고국을 떠난이래 고향에 계시는 홀어머니(박금례여사) 생각을 하루도 잊어 본적이 없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고국땅을 향하여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다고 한다.

대전직할시태권도협회 청년지도사회에서는 김사범 귀국 환영식을 성대하게 열어주고 그를 환영했다.

자매결연 맺은 인도네시아 시말랑의 선수와코치, 대전에서 전지 훈련

인도네시아의 사회정책장관
HARSRDOLONO HAKTAS

의 아들 마이헨드라(20세·대학생)씨와 시말랑시 태권도협회코치 에릭스(40세·4단)사범은 8월24일부터 9월15일까지 대전직할시태권도협회 전용도장에서 정통 태권도를 익히고 귀국했다.

이들의 태권도 전지훈련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시말랑시 태권도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전직할시협회 한용석 회장의 배려로 이루어진 것이다.

에릭스사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태권도 인구는 약10만여명으로 유단자는 500여명이 된다고 한다.

'93 대전 엑스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에릭스 사범은 『매년 수련생을 대전에 보내 정통 태권도정신과 기술을 익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태권도 선수인 마이헨드라씨는 『태권도 종주국에서의 태권도 수련이 기술 뿐만 아니라 정신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전 오노균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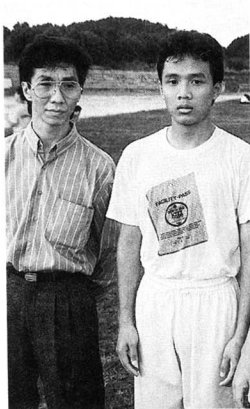
광주직할시협회

제4회 협회장기타기 초중고대학대회

8월10일과 11일 광주 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광주직할시 협회장기 타기초, 중, 고등학교 대학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다.

폭력의 일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선수층의 고른 실력 향상과 더불어 치열한 우승다툼으로 시종 일관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다.

초등부에서는 광주 백운국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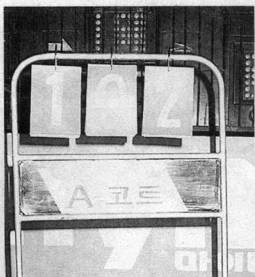


마이헨드라와 에릭스 사범

대전 번호판 제작

광주직할시 태권도협회는 각종 경기장에서 진행중인 경기가 무슨 체급 어느 선수인지를 관계자에게는 쉽게 알 수 없는 현행경기진행 방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 번호판을 제작하여 사용, 많은 사람들로 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따라서 광주경기에서는 대전표만 가지고 있으면 현재 A코트 또는 B코트에서 진행중인 경기가 몇번경기인가를 금방알수 있어 팀 코치나 선수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있다.

대전번호판을 쓰고 부터는 대기



선수의 호출이 훨씬 빨라졌고 자기의 시합순서를 알수있어 선수들도 질서있게 경기에 임하는 등 경기운영을 원활히 해주고 있다.

〈광주 윤웅석 편집위원〉

승의 영광을 안았고 뒤를 이어 청주남중이 준우승, 제천동중이 3위를 차지했다.

한편 고등부에서는 청주 금천고가 우승을 차지했고 청주기계공고가 준우승을 청주부강공고가 3위를 기록했다.

제 12주기 정갑순 회장추모 대회 및 제71회 전국 체전충북예선대회

7월24일과 25일 이틀간 청주한별국민학교에서 개최된 정갑순회장의 추모대회 및 전국체전 예선대회에서는 부별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가운데 체급별로 우승자를 냈다.

부별 우승자는 고등부 성태경(청주기공)박석근(금천고)민경환(금천고)남윤호(금천고)박태병(청주기공)진용민(금천고)홍중수(금천고)유승정(청주기공), 대학부 임계경 전상준 권오철 조희진 장주동 임태규 이광섭 임영희(이상청주대), 일반부 신재현(상무) 임명규(제천제) 지용석(충북협회) 이상현(제천제) 정상민(충북협회)공호권(옥천제)김영태(중부제)추교일(홍천제)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강릉고등학교에서 개최된 제8회 교육감기타기대회에서 우산국교, 화천중, 강원사대부교, 유봉여교가 부별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최우수선수상의 영에는 국교부에 김훈(우산국)정승리(통리국)윤미희(마현국), 중학교부 이재운(화천중), 고등부 남자 유인철(강원사대부교), 여자 김순이(유봉여교)가 각각 차지했다.

〈강원 최찬영 편집위원〉

강원도협회

제3회 승품단 심사대회

강원지역 승품단 심사대회가 7월 15일 강릉시 동부체육관에서 열려 1,469명이 응심에 합격했다.

품단별로보면 1품 467명, 2품 181명, 3품 28명, 1단 527명, 2단 141명, 3단 77명, 4단 37명, 5단 11명이다.

제8회 교육감기타기대회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협회

제13회 충북중고연맹 회장기대회 개최

중고선수들의 경기력향상을 위한 중고연맹회장기 대회가 열렸다.

중학교에서는 청주중학교가 우

충청남도협회

충남심판원협의회 「중심회」발족

충청남도심판원들은『천목을 도모하고 공정한 심판으로 심판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9월 15일 심판원 협의회를 결성했다.

태권도 소식



충남 심판원협의회 「충심회」 창립총회

현재 충남에서 심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충심회」는 고문에 양준목 협회 전무이사, 회장에 서인원 심판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서인원씨는 「심판들의 순수한 친목단체로서 뿐만 아니라 경기규칙의 이해증진을 통해 태권도 경기의 발전을 꾀하고 존경받는 심판원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충남 태권도 협회 제공〉

경상북도협회

제23회 도교육감기 대회

7월 19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3회 도교육감기대회는 초등부 59명, 중등부 66명, 고등부 50명 등 총175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루어졌다.

이날 회장을 대신해 예조해 실무회장은 대회사에서 『경북도교

육감기타기 대회는 23회를 맞는 대회로 사람으로 말하자면 청년기에 해당하므로 대회역시 알차고 성숙된 대회가 되길」 당부 하였고, 또 이영진 도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차지한 영광을 태권도인의 영광으로 그치지 말고 전 체육인의 영광이 되도록 발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지난22년전 1969년 10월19일 대구종합운동장(현 대구시민운동장)배구장에서 중등부1팀, 고등부5팀이 출전하여 마루바닥에서 치른 제1회 도교육감기타기대회는 지금 같이 개인 종합전이 아닌 6명(선봉, 전위, 중견, 후위, 주장, 후보)단체 리그전이였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대회 규모면이나 운영 등 모든것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크나큰 비약이라 할 수 있다.

이번대회에서 춘양국교, 영천중, 영천고가 각각 부별 우승을 차지했고 이현교(춘양국교) 최현철(영천중) 조진현(영천고)이 최우수선수상, 조현도(춘양국코치)



경상북도 교육감기대회 시상식

조형훈(영천중 감독)씨가 각각 지도상을 수상했다.

〈경북 신용우 편집위원〉

단이 20명, 8단이 41명으로 총 80명이 승단하였다. (합격자명단은 80페이지에 게재)

9월 8일에 3차 고단자심사 실시

9월 8일에는 제3차 고단자승단

국기원

2차 고단자(6-9단) 심사대회, 80명승단

국기원은 90년도 2차 고단자(6, 7, 8, 9단) 승단심사를 6월 30일에 실시하고 80명의 고단자를 배출했다.

총 99명의 응심자들은 오전에 교양강좌와 고단자 품새수련 교육을 받았고 오후에 품새·겨루기 및 논술시험을 치루었다.

논술시험은 6,7단이 품새와 겨루기의 불가분의 관계, 8·9단이 국기 태권도가 인기스포츠로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실시되었다.

단별로 합격자는 6단이 19명, 7

심사대회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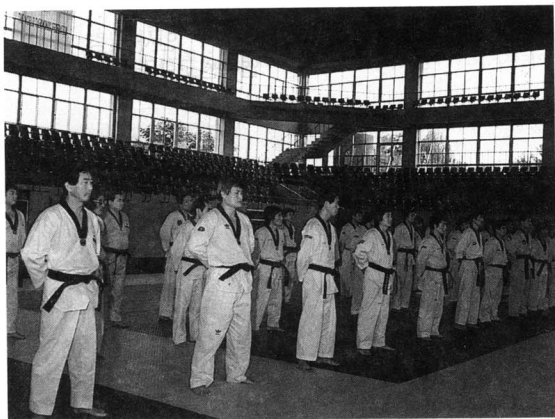
응심현황을 보면 6단 14명, 7단 12명, 8단 4명 등 총 30명이 참가했는데 합격자명단은 다음호 태권도지(75호 12월 발행)에 게재할 예정이다.

3급사회체육지도자교육 실시, 총430명 참가

국기원지도자연수원이 지난 2월 24일 체육부로부터 사회체육지도자연수원으로 승인받은 이래 8월 13일부터 25일까지 2기에 걸쳐 3급사회체육지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범자격소지자에게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총 430명이 참가했는데 제1기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제2기는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215명씩 나누어 실시되었다.

시도별 교육 참가현황을 보면 서울 162명, 부산 8명, 대구 20명, 인천 14명, 경기 129명, 강원 4명, 충북 3명, 충남 4명, 경북 43명, 경남 43명이다.



고단자 심사대회 응심자들.

태권도 소식

한편 9월 13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사범자격교육 및 3급사회체육지도자 교육은 체육부에서 각 대학 방학기인 11월이후로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연기되었다.

제12기 2급경기지도자교육
10월23일부터
11월10일까지 19일간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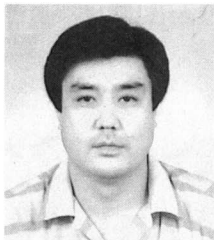
국기원 지도자연수원은 2급경기지도자연수과정을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지원서교부 및 접수는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교육대상자는 150명으로 제한되는데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19일에 발표된다.

교육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8시간씩 19일간 총128시간이 실시된다.

연수원 교육 수료자는 국가자격검정시험을 거쳐 체육부로부터 2급경기지도자 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인사 발령
연수원교학과장에오대영씨



국기원은 8월25일부로 지도자연수원 교학과장에 오대영씨를 발

령하였다.

- ▲1957. 10. 5일생
- ▲1983년 전주대졸업.

세계태권도연맹

소련, 세계연맹 가입 신청

소련의 체육성부국장과 태권도협회장 등 태권도 대표단 8명이 세계태권도연맹의 초청을 받아 7월 13일에 귀국해 세계연맹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태권도의 소련 진출에 대해 협의한 후 20일 출국했다.

소련은 세계연맹에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세계연맹의 준회원국이 되었고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그리스 아테네의 세계연맹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정회원국이 된다.

국제심판강습회 실시
9월, 푸에르토리코

세계연맹은 9월6일부터 9일까지 푸에르토리코에서 개최된 제7회 팬암태권도선수권대회에 앞서 새로 개정된 경기규칙과 심판시그널에 대한 국제 심판 강습회 및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서 멕시코에서 9월12일부터 16일까지 제22차 강습회를 마쳤는데, 세계연맹은 촉박한 교육일정으로 개정된 경기 규칙과 심판시그널은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림픽전시관개관



국민체육공단은 '88서울올림픽 대회를 영구히 기념하고 당시의 문화유산을 길이 보존하기위해 올림픽유스호스텔(90. 9. 1개장, 올림픽공원내)내에 서울올림픽기념관을 설립하였다.

9월17일 개장한 이 전시관에는 88년 올림픽 당시 사용되었던 각종 물품과 국내 메달리스트들의 경기용품 총272종 1,300여점 (총수집품 1,700종 16,000여종중)이 선보였는데 이중 태권도 부문에서는 박봉권선수 (당시 라이트급 금메달)의 상하의 도복과 띠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태권도의 이론정립 및 과학적 연구추진을 목적으로 1987년 11월에 결성된 태권도 학회가 8월 18일 올림픽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학회회원 및 태권도 관계인사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학술발표회에는 유진교수(중앙

대)의『태권도 경기기술의 정보처리 작용』의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편 학술회에 앞서 한림대학의 정범모교수는 『선수발굴과 육성』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는데 그는 태권도 수련의 시작에서부터 엘리트선수가 되기까지의 특

〈발표논문〉

- 태권도 경기기술의 정보처리 작용 : 유진(중앙 대학교수)
- 태권도 경기 공격유형의 탐색 : 손천택(인천대학교수)
- 태권도 후려차기의 운동학적 분석 : 이성철 · 김승재(연세대)
- 모델링과 태권도 동작학습 : 박대근(체육선교신학교)
- 여자태권도 선수들의 체형 및 신체구성에 관한 연구 : 전정우(경희대)
- 태권도지도도를 통한 긍정적 자아개념의 향상 : 주상일(학생체육관장학사)
- 무도수행에 대한 지눌(知訥) 불교사상의 적용 : 룬드주엔카(연세대강사)

태권도 소식

상에 관하여 설명했다.

특히 태권도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체육계가 안고 있는 당면문제도 체육인의 인권의 회복, 사회적위상의 정립, 빈곤층·학업부진층과 동일시되는 학교체육의 문제 개선등을 들며 체육인들 자신이 자존심을 걸고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체육에 있어서 특기자제도는 장기적

안목에서 체육계의 자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강연요지참고).

한편 오후 1시 30분부터 개최된 태권도학회 총회에서는 초대 강원식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선출이 있었는데 단국대의 정찬모교수가 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학술발표회와 함께 심포지엄도 개최할 계획”

—신임 정찬모 회장—

『학회가 태권도의 학문적, 기술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고 취임소감의 서투를 꺼낸

정찬모교수(단국대).

『우선 회원 상호간의 정보전달,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매달 1,2회의 학회보를 발간해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라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학회운영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학회의 연구방향에 대해서는 도장 운영 및 현장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논문의 발표로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태권도 이론 정립을 위한 인문 사회학적인 연구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태권도학회의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술발표와 더불어 태권도의 당면문제 등을 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의 해결 및 태권도 발전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심포지엄을 매년 개최하겠다고 했다.



제7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경기 10.16~19, 제천농고체육관에서 개최

국내 최대의 스포츠행사인 전국 체육대회가 충청북도의 각시군에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1주일간 열린다.

15개 시도지부 및 해외에서 2,000여명의 대규모선수단이 참가하게 될 이번 대회는 35개 종목이 시도대항전으로 펼쳐지게 된다.

향토의 명예를 위해 15개 시도지부가 각축을 벌이게 될 태권도경기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제천농고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전국체육대회의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 과열 경쟁으로 인한 시도지부의 잦은 항의와 이로 인한 경기중단 및 무질서한 경기장 분위기를 근절하고 태권도인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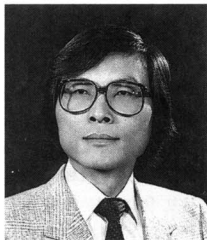
이와 함께 경기운영의 핵심부분인 심판원을 엄선하고 득점 및 우수세기준의 통일된 적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판원을 심판분과위에 임명하지 않고 협회에서 직접관리하며 엄격한 상벌을 적용, 우수 심판에게는 표창하는 대신 품위손상자는 전원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태권**

제자(題字)일도(一濤) 박영진 교수 표지(默畫)창산(蒼汕) 김대원 교수

계간 태권도지가 1971년도에 창간된 이래 내년이면 창간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대한태권도협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대망의 1991년도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경기대 미술대학에 계신 두분 교수들로부터 글과 그림을 받아 계간지의 얼굴을 새롭게 단장하였다. 묵화는 하늘을 가르듯 힘찬 뒤탈기로 태권도의 웅비하는 기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김대원교수가 맡아주실 예정이다.



일도 박영진

경기대 회화과교수·대한민국미술대전특선2회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창산 김대원

경기대 회화과교수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2회 우수상수상

故 金東錫 大學聯盟 會長の 명복을 빕니다.



대학태권도연맹 김동석회장(경원대학교 총장)이 9월 22일 오전 5시50분경, 고향인 강원도 원주군 부른면에 있는 선영에 다녀오다 경기도 광주군 증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故人は 88년 10월 대학태권도연맹 회장에 취임한 이래, 태권도에 남다른 정열을 쏟아 대학태권도 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故人は 지난 3월 경원대학교에 태권도부를 창단하고 4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대학태권도선수대회 한국 대표선수단 단장으로 선수단을 직접 총괄 지휘하여 남녀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또한 변혁기를 맞은 대학사회의 폭증하는 업무에 직면한 종합대학의 총장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초인적인 정열을 우리 태권도 발전에 쏟아왔다.

이제 만개된 대학 태권도 문화를 남겨두고 타계하신 故人の 영전에 대한태권도협회 200만 정회원과 함께 삼가 애도의 뜻을 올린다.

故 김동석 회장은 9월 26일 오전10시 당신이 처음 설립한 성일학원내에 안치되었다.

▲ 故 金東錫 會長 약력

- 1940. 2. 강원도 원주군 부른면에서 출생
- 1963. 3. 연세대 정법대학 법학과 졸업
- 1982. 5. 미국 어퍼아이오와大 법학박사학위취득
- 1988. 3. 미국 윌리엄펜대 교육학박사학위취득
- 1973. 6. 학교법인 성일학원 설립
- 1978. 7. 학교법인 경원학원 설립
- 1988. 3. 경원대학교 총장
- 1988. 10.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
- 1989. 4.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대한태권도협회는 故人の 높은 뜻을 기려 명예8단을 추서하였다.

태권도 생활체육측면에서 선도적 역할 유소년층 중심의 수련생 편중문제 해결이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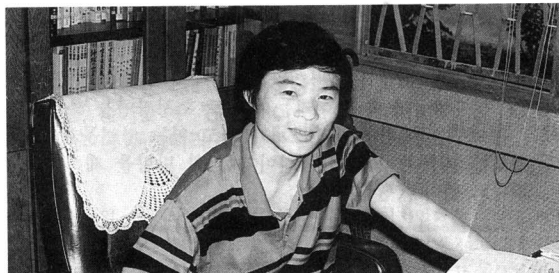
—양진방 (전국기원 지도자 연수원 교학과장)

『88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부턴 체육부 등 국가차원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있지만, 우리 태권도는 이미 2,30년전부터 생활체육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고 봅니다. 조직이나 기량등 그 역량이 충분히 축적돼 있지만, 유소년층 중심의 수련생 편중문제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8월25일부터 국기원 지도자연수원을 시작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른 전 교학과장 양진방씨는 생활체육측면에서 태권도의 현황을 이렇게 파악했다.

그는 태권도장의 수련층이 유소년층 중심으로 편중돼 된 이유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무술에 대한 동기유발이 저조해진 탓이라고 말한다. 『과거와 달리 태권도가 일반화됨에 따라 무술에 대한 희소성이 떨어지고, 사회가 산업화해감에 따라 수련의 여건 -시간적, 정신적-이 각박해지고 또 무술소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도 변해왔다고 봅니다.』

일예(一例)로 중고생들의 대학 입시에 대한 압박감이 모든 청소년 문화를 중단시킴으로써 국고태권도 수련인구가 대학과 일반태권도 수련층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태권도계도 도장의 운영만을 위해 무술로서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일반 성인들에게 무술적인 태권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투자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성인들에게 태권도는 국교생이나 하는 운동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점에 대해 유소년의 태권도형태는 이제 완전히 틀이 잡혔다고 긍정적으로 자부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다소 소홀히 해온 성인태권도를 지금부터 정상화 시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인들을 위한 조조운동, 직장운동프로그램 등을 시급히 개발 보급함으로써 유소년수련층의 좋은 기반을 성인부로 연계시켜야 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은 근본적으로 태권도가 성인층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30대를 포함한 장년층과 애기해 보면 문외한일수록 태권도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다만 시간, 지도자, 구체적 동기 등 여건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성인부와 유소년층 양쪽의 프로그램을 모두 발전시킴으로써 그러한 여건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86년 10월부터 연수원에서 일해온 그는 서울대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태권도에 관해 더 많은 연구를 위해 미국 아리조나주립대학 박사과정에 입문, 동서양 체육사상을 비교연구할 계획이라고, 8월28일 출국한 그는 태권도의 성인층을 비롯한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일선사범들만의 노력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태진**

선수발굴과 육성

제2회 태권도 학술발표회 초청강연 요약(要約)

지난 8월 18일 올림픽회관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태권도학술발표회에서 정범모교수는 「선수발굴과 육성」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다.

정교수는 여기서 태권도계가 안고 있는 당면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했는데 앞으로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편집자주>



정범모

(한림대학교수 · 한국행동과학연구소소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사대 교수와 학장, 충북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스포츠 뿐만 아니라 학문 예술 등에서 천재가 나오는 경로는 비슷하다고 본다. 그 공통된 특징을 보면 우선 어려서부터 시작한다. 둘째,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좋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델이 되어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집안의 분위기가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뒤에서 적극 지원한다. 넷째, 이들이 하는 일이 유별난 일이 아니라 다반사라는 점이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유별나게 보이더라도 그 자신이나 그 집안에서는 의례히 해야하는 일을 한다는 것과 같다. 다섯째, 명성을 얻게 되기까지 그에게는 엄청난 연습시간을 갖게된다. 보통 국민학교때는 평균 4·5시간, 중고등학생때는 8시간 정도, 그 이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시기 쯤에는 10시간 이상의 연습시간을 갖게되는 것이 보통이다. 여섯째, 자기가 하는 일을 자율적, 자발적으로 한다. 즉 오랜 시간의 연습을 요하는 일이 강압에 의해서는 절대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집안의 분위기 등이 의례히 해야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할 뿐더러 뒤에서 적극 지원, 격려함으로써 인내심을 갖고 훈련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갖게한다.

특기자 선발제도는 거시적 안목에서 자살행위

**한국의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체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체육이
 정상화되어야만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상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체육·음악·미술 등 예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이들의 뒤에는 항상 희생적인 보호자가 있다. 여덟째, 숙련의 경지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방면의 최고 권위자인 스승(mentor)으로부터 최고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쌓고 정신훈련과 생활철학 등을 배운다.

한편 선수의 선발과 양성의 문제는 우선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체육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체육이 정상화되어야만 학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는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상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체육·음악·미술 등 예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학교체육은 치열한 입시교육에 밀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육의 일부로서의 자리를 박탈당하고 급하면 빼먹어도 되는 시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기자 선발제도는 거시적 안목에서 체육계의 자살행위라고 본다.

십수년전의 일이지만 친척아이가 중의 하나가 국민학교 때 수영을 잘해 각종 대회에서 입상을 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는 중학교도 입시시험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특기자로 입학하라고 했더니 "특기자로 입학을 하면 공부도 안시키고 운동만 해야되며 잘못하면 매만 맞는다"고 들었다며 "수영은

내가 좋아서 할 뿐이지 특기자입학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미 체육인이 학교교육에 정상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기름처럼 유리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 아닌가 본다.

사회체육과 관련해서 볼 때 태권도를 시작하는 계기가 부모나 주위인사가 하지 않았더라도 각종 체육 시설이나 태권도장이 태권도 수련이나 취미공간으로서 쉽게 드나들 수 있어 어린이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수련생들 중에서 우수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대회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참가할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태권도가 사회체육적인 측면보다는 학교체육에서 선수양성에만 치우쳐왔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사회체육이 발달하면 자연히 우수한 선수의 발골은 더욱 용이해진다고 본다.

선수의 발굴과 양성은 연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소질이 있는 사람을 발굴해 선수로 양성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는 소질만 있으면 천재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천재는 소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을 수반한 훈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의 일례로 I.Q 220으로 기네스북에까지 올라간 김용은은 미래에 위대한 학자가 되리라는 기대가 빛나가 평범한 사람이

체육인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하는 사회적인
위상이 체육 엘리트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에서 체육문제의 커다란 비극의
하나는 체육이 빈곤층,
학업부진층과
동일시된다는 인식이다.
이는 체육계에 종사하는 체육인들이 전문인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걸고 해결해야할 문제다.

되었을 뿐이다. 이는 소질있는 사람의 발굴만이 아니라 평가해서 훈련, 훈련해서 재평가, 그리고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야만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한편 체육인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하는 사회적인 위상이 체육 엘리트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에서 체육문제의 커다란 비극의 하나는 체육이 빈곤층, 학업부진층과 동일시된다는 인식이다. 이는 체육계에 종사하는 체육인들이 전문인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걸고 해결해야할 문제다.

몇년전 본인이 충북대학교 총장으로 재임시 있었던 일로 충북에서 소년체전이 열렸었다. 당시 충북의 고위 인사들간에 교육위원회에 청탁 아닌 청탁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자식이 운동 잘한다고 선수로는 뽑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이유는 선수로 선발되면 연습 때문에 공부도 못할 뿐더러 소년체전에 출전해 공부도 못하는 아이로 취급되는게 싫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트를 내기는 힘든 것이다.

언젠가 국제농구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캐나다팀을 주역으로 이끈 여자선수에게 기자가 「귀국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바로 변호사 시험을 봐야 한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TV화면

을 통해 보았는데 우리나라 풍토에선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체육인의 책임이다.

우수한 체육인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들이 먼저 선수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학교체육에서는 선수들이 각종 대회등 행사 때문에 공부하는 인권이 깃눌리고 있다. 소년체전 등의 경우 개최되기 한두달 전부터 선수들은 공부보다는 운동에 치중하게 된다. 그들 중 몇명이 우승도 하고 상급학교에 특기자로 선발되기도 하지만 나머지 많은 선수들은 혼적도 없이 흩어지게 된다. 선수들은 성장하면서도 계속 자신과 학교, 고장, 나아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운동하는 동안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선수 양성면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훌륭한 선수양성을 위해서 지도자는 언제 선수를 발굴하고, 평가하고, 훈련을 시킬지에 대한 시기를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기본적인 기술만 갖추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처럼 끝없는 훈련으로 운동외의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합전 집중적인 훈련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염두에 두고 과학적인 훈련방법을 연구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대건**

“태권도가 없었던 들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

은광여고 교장 박희원



대회에 나가 입상한 태권도부 선수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박희원 교장

남성들의 운동으로만 여겨왔던 태권도가 일반 여성들에게도 널리 확산되기까지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교육자가 있다.

올해 48세의 은광여고교장 박희원씨.

박교장이 여성 태권도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77년 3월 은광여고에 태권도부를 창단하면서부터.

『당시까지만해도 국기였던 태권도가 아직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볼모지나 다름없었던 여자고등학교에 태권도부를 창단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모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교장은 전통적인 태권도의 지도방법에서 벗어나 태권도의 절도있는 동작과 춤의 부드러운 곡선을 조화시킨 태권무를 개발해 여고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태권도를 격투기뿐만 아니라 인식해왔던 여고생들도 태권무의 아름다운 동작에 매료돼 점차 많은 학생들이 배우기 시작했다.

『태권도의 기본기술인 품새와 겨루기동작을 바탕으로 현대감각에 맞는 에어로빅·디스코풍을 가미한 태권무는 86아시아게임 개막식 공개행사에서 관중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행사에서는 농악과 전통탈춤 등의 춤사위를 곁들인 흥겨운 무대도 선보여 관중들에게 태권도의 새로운 멋을 느끼게 했다.

이처럼 태권도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기여해온 박교장은 현재 8단의 고단자.

평소 태권도를 『불가능을 가능케하는 신비의 존재』라며 태권도와 함께해온 박교장의 남다른 애착은 『태권도가 없었던들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데서 알 수 있었다.

박교장이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어려서 몸이 약하고 내성적이었기 때문. 여학생들이 서너명만 모여있어도 앞을 지나가기가 부끄러울 지경이었고 게다가 전청후의 가난한 나날은 끼니조차 잇기가 어려울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그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점차 자신감과 의지를 굳히게 되었고 점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태권도를 가르쳐야겠다는 꿈을 키우게 되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안양에 태권도장을 차려 틈틈히 동네 꼬마들을 모아 기본동작을 가르쳤고 대학에



박희원 교장

진학해서는 『청석학당』을 개설해 학교가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8시간씩 강행군으로 태권도를 지도하며 수련했다.

어렵게 고려대에 합격하고서도 등록금이 없어 건국대 배대 장학생으로 진학한 그는 안양의 미군부대에서 태권도 지도를 하며 학업을 마칠수 있었다고 한다.

박교장의 태권도 행진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군생활 중에는 육사에서 태권도 교관으로 복무하는 등 끊임없이 정진해나갔다.

제대후 교직에 있으면서 고려대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에도 열성을 보였던 것은 『태권도인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일거리가 많은 학교』를 찾아 송곡중·송곡여고를 거쳐 은광여고에 부임한 것은 1975년. 『여성들에게도 태권도정신을 심어 건강하고 예의 바르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태권도부를 창단했지만 주위의 반대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요한 노력과 자신의 뜻을 이해한 학교측과 많은 사람들이 이에 호응, 은광여고는 여성 태권도의 산실로 점차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은광여고는 체육과 음악교사를 중심으로 연구부를 두어 여성에게 어울리는 태권도 개발에 몰두 마침내 태권무를 개발했고, 78년부터는 점심시간에 전교생이 5분간 태권무를 하기에 이르렀다.



학교발전을 위해 애써준 육성회 학부모들과 함께한 박희원 교장.

태권도 동작에 리듬을 집목한 태권무가 각종 개막식 행사, 축제행사 등에서 점차 인기를 더해가자 82년 서울시민체전 개막식 행사를 계기로 88올림픽을 대비해 「88태권무용」으로 공식명칭을 정하게 되었다.

당시 일화 중에는 여성의 태권도 수련에 가장 반대한 해왔던 서울시의 모교육함이 나중에는 여성태권도 대회를 창설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은광여고 태권도부는 태권무가 88태권무용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보다 세련된 동작을 연구하기 위해 직접 탈춤을 배우며 현대리듬감각까지 익히는 열성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태권무의 개발은 일반인들과 청소년들 사이에 태권도의 관심을 고조시켰고 외국인들에게 특히 호응이 좋아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범들은 태권무를 비디오표로 촬영해 유류·남미 등지로 적극 보급했다.

그러나 이렇게 10년 가까이 태권무의 개발보급에 앞장섰던 은광여고가 1985년도를 고비로 엄청난 학교 재정난을 겪으면서 태권도부는 호지부지 되기 시작해 현재는 선수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교장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수련토록 한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남녀 구분없이 정신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요즘은 선수들이 태

권도경기에 참가, 오로지 입상전적을 올려 대학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한다.

박교장은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구로 태권도의 의미를 축소, 왜곡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태권도의 목표가 마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실사 올림픽정식종목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통무예로서 무도정신을 이어나갈 때 비로소 태권도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1975년에 교사로 부임한 이래 1988년 교장으로 취임한 박교장은 특히 학생들에게 태권도정신을 강조함은 물론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일하며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태권도인의 정신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교장은 남들이 자신을 「태권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태권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며 『우리 태권도인이 기량만을 자랑하는 기술인이 아닌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도록 심신을 연마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태권**

“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공정한 판정으로 태권도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

상임심판원 감독관 심명구



『경기에 있어 심판의 정확한 판정의지와 능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선수 기량의 평준화 추세, 경기규칙의 우세와 득점·경고 등에 대한 지도자, 심판, 태권도관계임원의 해석의 차이가 판정에 있어 불협화음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의 심판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을 연 심명구심판은 1976년 3월 신인선수권대회를 시발로 15년간 200여 대회에서 심판활동을 하였고 올해 협

회가 도입한 상임심판원의 감독관으로 임명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때 처음 태권도에 입문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와 함께한 그는 지금 상임심판원이며 태권도 관장(우주체육관)이며 7단의 고단자이다.

특히 심판으로서 존경받는 인물 중의 한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심명구심판은 『태권도에 첫발을 들여놓았던 도장에 진한 목념새를 풍기듯 쓰여있던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가 된다”는 관훈이 지금까지도 계기숨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고 말하는 것에서 지금의 그가 있게된 일면을 보는 듯했다.

심명구 심판은 심판활동을 15년간 해오면서도 태권도 선수들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심판이 되면서 그가 세운 원칙 중의 하나는 바로 「특정선수에게 관심을 갖지 말자」는 것이었다. 어떤 선수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판정에 선입견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선수뿐만 아니라 팀코치들과의 관계도 거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일선 코치들과는 조금이라도 부담감이 느껴지는 커피는 절대 마시지 않을 뿐더러 경기장에서는 어느 코치와도 아예 마주치지 않으려한다는 것이 그의 원칙 아닌 원칙이다. 그의 이런 고집스러움이 어느듯 어색한 것이 아닌 바로 그의 스타일이 되어 버려 이젠 어느누구도 그를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 심판으로 등단하는 후배들에게 그는 그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도록 일러준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선수 아닌 지도자들이 되어 있는 사람중에 다양한 기술을 일품으로 보여준 김철환씨와 특히 발차기가 하늘을 가르듯 곧게 뻗으며 위력을 발휘한 김상천씨가 우수한 선수들이었다고 기억한다.

수많은 팀의 지도자들의 모습도 각양각색이지만 경기에서 승패에 관계없이 늘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갔던 모 학교 코치의 모습은 기량이 뛰어난 국가대표급 선수를 많이 배출한 코치 이상으로 존경스러워 보였다고 한다.

그는 태권도 경기가 승패를 가리는 것이긴 하지만 출전선수의 90% 이상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일부로서 경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경기의 공정한 심판, 코치의 바른 모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올바른 지도자 밑에서 올바른 선수가 나온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코치들이 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절대 폭력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한다. 판정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소청을 제기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풍토의 정착이 시급하다는 그는 『물론 그동안 소청제기로 효과를 본 사람이

**심판이 되면서
그가 세운 원칙 중의
하나는 바로 「특정선수에게
관심을 갖지 말자」는 것이었다.
어떤 선수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판정에 선입견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선수뿐만 아니라 팀코치들과의
관계도 거리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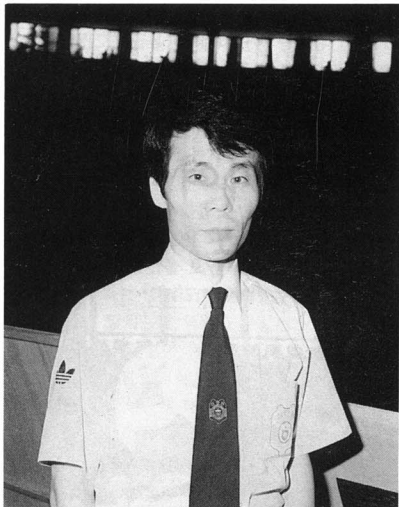
별로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대화가 아닌 힘에 의한 어필은 올바른 태권도 정신을 갖지 못한 것이다』고 못박는다.

더욱이 일선지도자들 중에는 경기규칙도 제대로 모르면서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태권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내 아들이 선수로 뛰어도 한점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공정한 심판을 볼 수 있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렇다고 그에게 심판으로서 전혀 오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심판 헛병아리라 할 수 있는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다. 1977년도 대통령기대회 때 우승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경기에서 주심을 보게 되었던 것. 태권도관계인원을 비롯해 응원석, 각학교의 선수, 지도자들이 온통 그 경기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경기는 태권도 강팀이었던 서울체고와 성동상전의 대결로 당시 유망주로 주목받던 김종기(서울체고)와 조남수(성동상전)가 메달권 진입을 놓고 각축전을 벌였으나 무승부로 끝났다. 지금의 경기규칙과는 달리 무승부일 경우 우세판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몸무게가 적은 선수가 이기게 되어 있어 결국 조남수가 메달권에 진입, 밴텀급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그때 좀더 엄밀히(?)판정을 내렸더라면 승패는 바뀔 수도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그 경기를 잊지 못하고 있다. **태권**



**심명구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판
 일지를 써오고 있다.
 특히 심판을 볼때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의 생각과
 같은 판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집에 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기내용을 분석,
 판정의 문제점을 파악하며
 좀더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심판경험도 별로 없는데다가 너무나 이
 목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남수선수에 게 경고
 를 내릴 수 있는 상황(보통은 넘어갈수도 있는)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지나쳐버렸던것. 결국 경
 기 득점면에서는 무승부였으나 전반적으로 김중기
 선수가 우세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수

에게 경고를 주지않았음으로 인해 판정이 생각밖으
 로 나게 되었다는것.

심명구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판 일지를
 써오고 있다. 특히 심판을 볼때 문제가 생기거나 자
 신의 생각과 같은 판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집에 와
 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기내용을 분석, 판정의 문제
 점을 파악하며 좀더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한 노
 력을 계속하고 있다.

심판활동을 통해 10여년전과 비교해 기술면에서
 전반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기술이 득점을 얻
 는 방향으로만 발휘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 발차기
 등은 발휘되지 않는다고 보는 심명구씨. 그래서 그는
 태권도 기술의 고도화된 발전을 위해서는 득점차등
 제를 실시해 기술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있다. 또한 『태권도는 겨루기시험 뿐만이
 아니라 품새도 미를 창조한다』며 태권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품새경연대회도 열리면 좋을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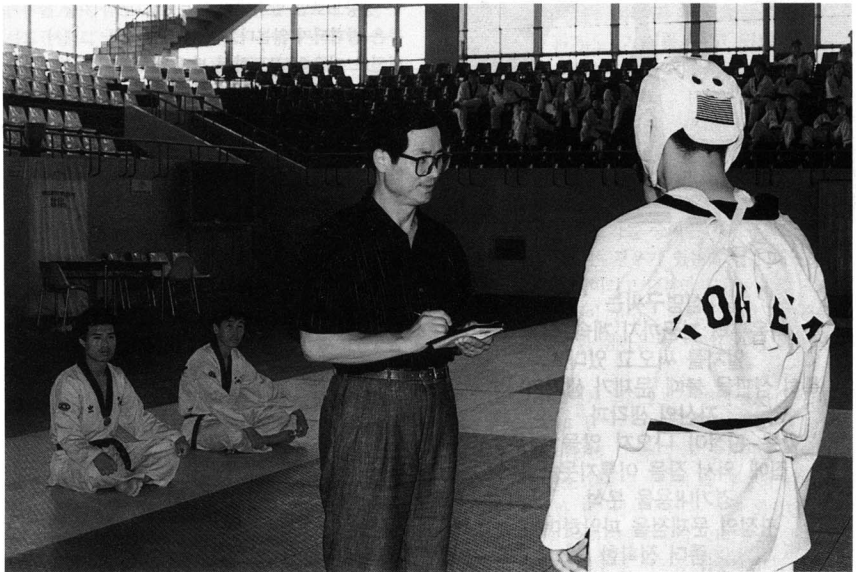
『도복을 입고 있는한 태권도사범은 교육자라는 본
 분을 살려 태권도의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는데 노력
 할 것』이라는 그는 14년동안 도장을 운영해오면서도
 태권도의 유치원화를 원치않아 국민학생들부터 입
 관시키고 있는 고집스러움도 있다.

그는 태권도를 사랑하고 태권도 수련이 누구에게
 나 필요하다고 여겨 두 딸에게도 태권도를 시켜 품
 을 탄 것은 물론 조카들까지도 의무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토록 해 집안식구들 모두가 유단품자라고 했다.
 특히 부인 신미숙씨는 공인 4단으로 2급 경기지도자
 자격증까지 갖고있는 태권도인으로 남편 심명구씨와
 함께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부태권도인이다.

앞으로 경기판정에 있어 컴퓨터 채점기가 사용됨
 으로써 판정시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명
 구씨. 그는 『태권도 경기규칙의 개정, 컴퓨터채점기
 의 사용 등에 있어서 우선 심판원에게 득점과 우세
 의 기준이 정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판원들이 규칙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저는 태권도
 를 사랑하는 사람은 불공정한 판정으로 태권도의 위
 신을 실추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며 말
 을 맺었다. **태권**

태권도 영화제작으로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여

국립영화제작소 감독 박순구



촬영에 앞서 선수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박순구감독

국립영화제작소의 박순구감독(52세)은 단점이 없는 비태권도인이지만 태권도영화의 제작으로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여한 숨은 일꾼이다.

박감독은 국내외 흥보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국립영화제작소에서 20여년이 넘게 근무해오는 동안 수많은 문화영화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조명하며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해왔다. 그 중에서도 태권도를 주제로 83년에 「국기 태권도」, 85년에 「태권도」에

이어 올해말에 선보일 「한국의 전통무예」 등 3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상업영화와는 달리 문화영화는 시나리오 구성에서부터 필름 편집까지 감독 혼자 힘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박감독은 3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동안 어느 태권도 고단자보다도 역사에서부터 국내의 태권도현황까지 잘 알고 있는 태권도인(?) 중의 한사람이다.

1982년 인도에서 개최된 제9회 아시안게임의 기록

영화 제작차 파견되었다가 우연히 교민 중의 한사람이 태권도보급을 위해 대단한 열성을 보이는 것에 감동을 받아 태권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박감독. 그는 고유의 전통무예인 태권도가 외국에 널리 보급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태권도사범들이 뼈를 깎는 고생을 하고 있는가를 목격하면서 태권도 영화를 제작해 그 나라 언어로 상영된다면 태권도사범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더러 태권도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빠른 길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83년도에 첫선을 보인 작품이 「국기 태권도」이다. 이 영화는 『태권도가 빠대를 가진 한국의 고유무예』임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었는데 영어, 불어, 독일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6개국어로 번역되어 각국의 대사관으로 배포되어 상영되었다.

이어 1985년도에 태권도가 '86아시아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태권도의 기술과 정신을 위주한 「태권도」를 제작, 아시아지역에 태권도에 대한 홍보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 작품은 그해에 불란서스포츠영화제에 출품되어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3번째 촬영 중에 있는 작품이 「한국의 전통무예」.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무예이면서도 올림픽 무대에 참여하는 범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함에 따라 태권도경기를 위주로 영화화함으로써 경기규칙 등을 알려 태권도 경기 관람을 위한 대외 홍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굳이 태권도라는 단어를 덧붙이지 않더라도 한국의 전통무예라면 태권도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한 영화제목이라고 한다.



직접 손을 들어 이렇게 해보라고 시범을 보이는 박감독.

“
태권도를 비롯해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아
아름다운 영상으로 옮기는
능력있는 영화감독

”

그는 영화촬영을 위해 아시아, 유럽, 남미 등 많은 나라를 방문해 태권도장을 찾아 사범들을 만나고 수련생들의 모습을 렌즈에 담았다. 박감독은 해외에 나가있는 태권도 사범을 「제2의대사」라고 부른다. 또한 태권도가 『외국인들에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한국의 이미지에다 「강인한 힘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한편 해외의 태권도 사범들은 스포츠인이라고 보다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은 예의범절이 바르고 인내심 등을 키우며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됨으로써 일반 스포츠와는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더러 외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의 태권도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련생들의 부모들이 사범을 찾아와 자식의 문제에 대해 상담하는 일등은 보통 있는 일이라고 한다.

1983년도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제6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을 때의 일화로 덴마크의 한 지방도시에선 사범에 대한 존경과 태권도 종주국에 대한 동경 등으로 덴마크 뿐만 아니라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수련생과 그의 가족들 수백명이 단채로 원정 응원을 하러와 「코리아 코리아!」를 열창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는 것.

박감독은 이렇게 해외 태권도에 대해 자랑스러운 듯 이야기를 이끌다가 국내의 태권도 현실로 영상이 돌아오자 현장 촬영이 더 어렵다는 고충 아닌 고충을 털어놓는다.

태권도장 몇군데를 소개받아 막상 가보면 「태권도장으로 내세울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도장이 유치부 및 국교생 등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도무지 태권도가 강조하는 무도정

66

박감독은 3편의 태권도영화를 제작하는 동안 어느 태권도 고단자보다 역사에서부터 국내외 태권도현황까지 잘 알고 있는 태권도인(?)중의 한 사람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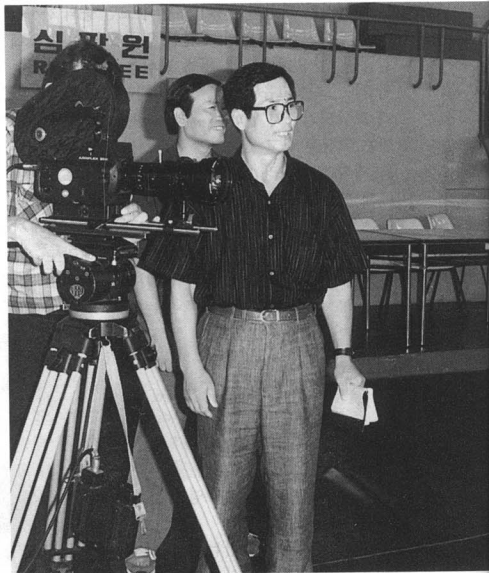
신을 기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면모를 찾아보지 못할 일개 체육관으로서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영화감독이 한국을 대표할 태권도 수련도장하나도 찍을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까워 했다. 또한 국내에서 태권도의 중앙도장으로 꼽는 국기원도 외국의 일개 도장보다도 못한 시설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런 형편에서 외국의 많은 수련생들이 태권도 중추국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걱정이라고 한다.

박감독은 태권도를 전혀 배우지 않은 문외한은 아니다. 용산고 재학시절에 태권도를 좋아하는 체육선생이 방과후 지원자를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해 그 당시 약 2년간을 배웠다는 것. 이후 한국군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듯이 군대에 입대해서 태권도와 다시 만나게 된 이래 영화감독으로서 완전히 태권도인(?)으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그는 태권도를 비롯해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아 아름다운 영상으로 옮기는 능력있는 영화감독이다.

「태권도」로 1985년 불란서 스포츠영화제 금상을 탄 것을 비롯, 「한복」으로 1981년도에 제43회 이태리 살레르노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개가를 올렸고 이듬해인 1982년도에 「한국의 전통음식」으로 같은 영화제에서 대상을 타내는 영예를 안았다.

박감독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대학



국기원에서 「한국의 전통음식」을 촬영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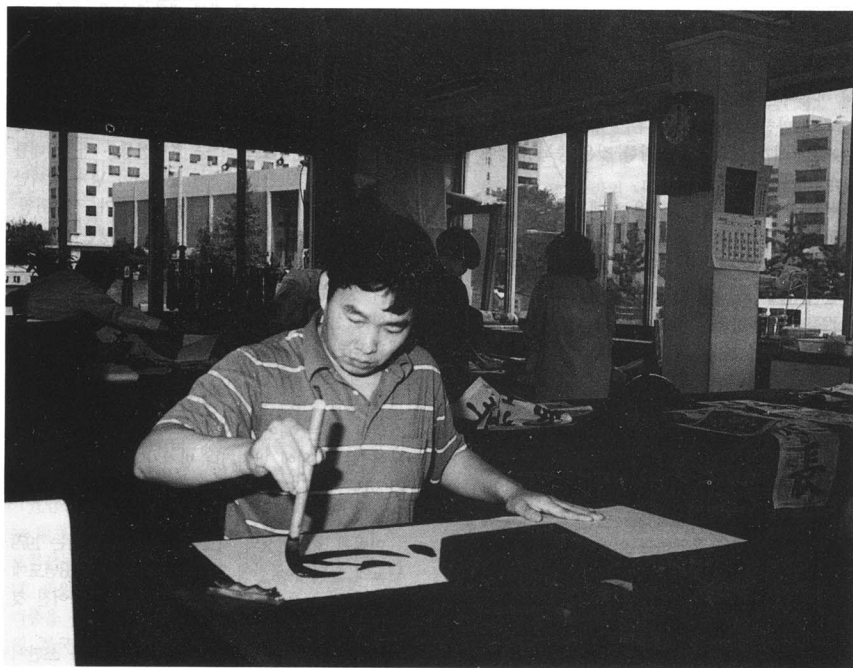
시절 국문학과 연극영화학을 전공한데다 대학 재학 중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미명의 종소리」가 시나리오 부문 입선을 할 정도의 문학적 재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영화의 길은 가시밭길이다. 영화에 완전히 빠질 수는 사람만이 영화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의 지론처럼 작가적인 눈과 정신을 갖고 내면세계를 표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감독은 태권도가 국기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우선 국민 모두가 태권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학교만 다녀도 품새 정도는 누구든 기본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체조로 개발하는 것이 어떨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태권도인들이 태권도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측면이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 태권도 지도자들이 단지 스포츠인으로서 대접받는 것이 아닌 존경받는 스포츠으로서의 위상점립,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권**



국전 초대작가 된 고단자

서예가 조재호 7단



『도장에 나가면 글을 쓴다고 해서, 글씨 쓰는 곳에 가면 운동을 했다고 해서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라고들 환영해주시니 좋다』고 말하는 우봉(友峯) 조재호씨(44세). 그는 도장사범 등을 거쳐 현재 고단자이기도 하지만 서예가로서 대가라 할 수 있는 국전 초대작가이다.

서예가로서 많은 글귀를 읽고 쓰게 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해 즐겨쓰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마음과 몸을 갈고 닦는다”는 「心身鍊磨」이다.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던 고교시절부터 「심신연마」를 들어왔지만 글을 쓰는 것도 심신을 연마하는 작업이라는 조재호씨. 그래서 그는 태권도를 하는 것이 동적이고 글을 쓰는 것이 정적이라는 일반적인 차이외에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다고 한다.

『글을 쓸 때 정신통일이 되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욕심이 앞서면 글이 되지 않지요. 또한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되고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비워야 하고 먹을 갈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아야 합니다.』

이처럼 글을 쓰는 것이 태권도 수련시 격파 등을 할 때 정신통일이 되지않으면 안된다거나 겨루기에서 마음이 앞서면 발이 제대로 뻗지 않는다거나 하는 점과 마찬가지로는 것이다.

조재호씨가 태권도를 시작한 것은 충북 음성에서 음성고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한동네에 살던 형이 도장을 하게 되어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다가 이듬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불광동 건민체육관에서 한철유사범으로부터 계속 지도를 받아 1965년도에 초단을 뒀다.

1972년도에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이미 4단이었던 그는 태권도교관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게 되었다. 또한 글씨를 쓴지도 4.5년이 넘어 상벌계에서 표창장을 쓰는 일도 도맡아서 했다.

군제대후 1982년도까지 6년간 건민체육관에서 사범으로 지도자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태권도만 해온 것은 아니었다.

1965년도에 고교를 졸업했을 때 불교신자로 사찰(홍은동 홍은사)을 운영하는 어머니의 권유로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 서예가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처음에 서예학원에 나아가 약 2년간을 배웠는데 당시 서예가로 이름이 높았던 효남(曉楠) 박병규선생(65세)이 한달간 특별강사로 나와 지도하게 된 것

“

서예가로서
많은 글귀를 읽고
쓰게 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해 즐겨쓰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은 “마음과
몸을 갈고 닦는다”는
「心身鍊磨」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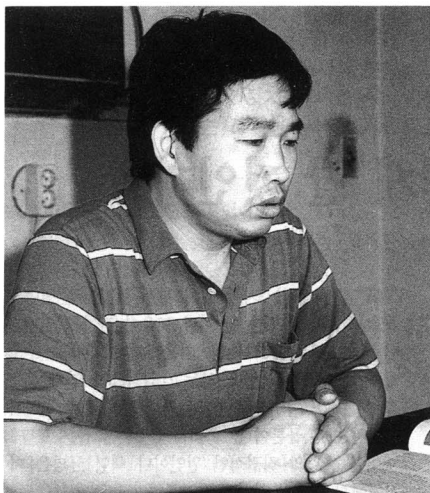
을 계기로 그는 서예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효남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 조재호씨가 「선비중의 선비, 오히려 도인이라 부르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들려준 스승 효남선생은 서울상대를 졸업한 이래 서예에 입문해 50여년이 넘게 글씨만 써온 서예계의 대가이다. 국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운영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효남선생은 「언제나 묵묵히 도를 닦듯이 글을 쓰시는 분」이다. 효남선생의 생가는 바로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주인공 서희가 살고있는 한옥의 배경이었다고 들려주는 조재호씨는 특히 효남선생이 조선조 사육신의 한분이었던 박팽년의 후손이라고 들려준다.

『선생님께서는 글씨도 리듬을 타야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가는 획이 있으면 굵은 획이 있어야 하고 묵이 화선지위에 번지거나 번지지 않거나 하는 「농갈」이도 리듬을 타듯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효남선생의 지도를 받은 조재호씨는 1979년도에 드디어 국전에 입선하게 되었다. 1988년도에 국전에 첫 출품작은 낸 이래 12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태권도 수련을 할 때도 그렇지만 글씨를 쓰면서



“
 제가
 운동을 할 때만
 해도 도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정의롭고 바르게
 살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복을 입으면
 뿌듯함과 자랑스러움마저
 있었습니다.”

도 많은 벽을 느꼈지요. 그 고비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잔잔한 미소 곁으로는 지난날 그의 인생 가까이 머물던 좌절의 나날들이 스쳐지나가는 듯했다.

어느 경지까지 오르기가 어렵다는 말처럼 11년간 계속 낙선의 고배를 들어야 했던 그는 그 이후에 계속 국전에서 입상하는 개가를 올렸다. 80년 81년에 입선한 이후 1986년에 드디어 미술대전 특선의 영광을 안았고 1987년 국전에 입선, 89년에 국전 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특선 2회를 하면 국전 초대작가의 칭호를 받게 되는데 그는 일반적으로 대가라 불리는 그 대열에 당당히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가라는 말에 얼굴마저 붉어지며 손을 내저으며 『이제 겨우 서예의 문턱에 들어섰다』며 많은 선배들에 비하면 아직도 햇병아리에 불과하다고 겸손해 한다.

효남선생을 모시고 청진서회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현재 수강생 50여명을 지도하고 있고, 대한항공, 보험감독원, 여학생교육원에 서예강사로 나가고 있다. 회원전만해도 71년도부터 올해까지 20회를 열어 작품을 선보인 조재호씨는 현재 한국서예가협회 회원, 한국미술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사찰을 운영하실 정도로 불심이 깊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도 역시 불심이 깊은 신자이다. 『불심은 곧 극락이다』는 그는 마음이 너무 커도 극락은 비켜간다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고 편안한 마음이 되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40대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0년은 젊어보이는 동안(童顏)이다.

『三省百忍 : 모든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세번 살펴 피고 백번을 참는다』는 글귀를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는 그는 33살에 결혼해 지금은 국교4학년인 딸과 2학년인 아들을 두고 있다. 그는 일요일이면 종종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태권도 품새를 배워주는 것이 기쁨 중의 하나라고 한다.

앞으로의 태권도계에 대한 바램은 무엇이라는 물음에 『제가 운동을 할 때만 해도 도복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을 정의롭고 바르게 살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복을 입으면 뿌듯함과 자랑스러움마저 있었습니다.』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 했는데 우리는 그의 이 말에서 태권도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태권**

사범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기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과연
우리 태권도계의 핵심 요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단계적인 발전
지표를 제시하여
왔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9월 13일 부터 3차에 걸쳐 병행 실시기로 했던 3급 사회체육 지도자 및 사범 교육이 갑자기 연기되어 시·도지부와 교육 신청자들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다. 교육 개시 6일을 앞두고 급작스레 연기 통보를 받은 400 여수강 신청자들의 항의성 문의 전화가 빗발친 것은 물론이다.

이런 혼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책임 규명은 이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18년간 63기 까지 7,200여명의 사범을 배출해 온 사범 교육제도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어떻게 새롭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를 냉철히 판단하고 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인 '89년도에 한국 체육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시행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을 계기로 사회체육 정책을 국민복지증진이라는 차원에서 선진국형 여가 생활로의 진입을 위해 적극 추진하려는 것이 정부 주무부서인 체육부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과연 우리 태권도계의 핵심 요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단계적인 발전 지표를 제시하여 왔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아닌 「너의 문제」로 치부하여 '핑-퐁'질 하기에는, 너무도 커다란 사회적 변동 현상이라는 파도가 우리의 생존과 발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긴장감을 우리는 태권도계 상층부의 어디에서고 쉽사리 찾아 볼 수가 없지는 않은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회 조직 내에서 교육제도가 갖

5년전, 10년전에 받은 한차례의 사범 교육으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하리라고 믿는다면 우리 태권도계의
장래는 결코 밝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이 요구하는 체육시설(도장)의 강사 요건은 3급 사회체육 지도자
과정으로 충족해야 하지만 새로운 사범상의 정립이라는 숙제는 계속 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범 교육 과정의 정립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는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인류의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바로 교육의 참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태권도 문화의 맥락을 이어나가는 교육제
도가 그동안 사범 교육 이외에 어떤 공식적인 제도
가 있었는가?

일선의 요구는 태권도 교육 현장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또, 적절히 앞서서 선도할 수 있는
태권도 사범의 배출을 바라고 있다.

게다가 적절한 재 교육의 기회 즉, 사범 보수교육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금의 몇몇 여론 선도자들은 사범 교육
이 수강자들의 비용과 편의 때문에 각 지방 대학에
서 받을 수 있는 3급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 교육으
로 갈음하여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길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사범 교육을 폐지하고 3급 사회체육 지도자
과정을 4단 이상자로 하여금 이수케하여 체육부 장
관의 3급 사회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사범 자격증과
동일시 할 것인가?

둘째, 3급 사회체육 지도자 교육과 사범교육을 병
행 실시하여 4단 이상자에 대해 9일간의 교육으로 두
자격증을 동시에 부여할 것인가?

셋째, 사범 교육을 보다 현장 중심형으로 강화하
고 그 교육을 이수한 사범 자격 소지자를 3급 사회
체육 지도자 교육에 참가시킬 것인가?

넷째, 4단 이상자는 사범 자격 소지와 관계없이 3
급 사회체육 지도자 과정에 입문시키고 희망자에 한
해 사범 교육에 참여시킬 것인가?

이상의 4가지 방안 모두 일정한 한계점을 갖고 있
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본적인 관점을 어디에 두고 접근할 것인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사범」이라는 호칭을 4단 이상이면 모두 부
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시험을 거쳤다는 통과의 리
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관점을 들 수 있다.

이 말은 사범이란 '문하생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자로서, 유급자 심사권과 급의 부여권, 그리
고 유단품·심사의 추천권을 갖는다'는 전통적 가치
를 포함한다.

또 다른 관점은 사범을 '도장 개설권 내지 강사
등록의 요건'이라는 행정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필자는 과연 우리 태권도계의 18년간 63회라는 축적
된 사범 교육 제도를 체육 시설의 강사 요건이라는
법률의 요구 수준으로 머물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
한 회의를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 태권도계는 일시적 혼돈 상태를 하루
빨리 벗어나서 시대 환경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냉정히 분석하고 기존 사범 교육 과정의 미비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범의 자질과 능력 그
리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범상을 정립
할 수 있는 신 사범 교육 과정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더욱이, 기존 사범 자격 소지자에게도 보수 교육
을 통한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계기를 조속히 만
들어야 한다.

5년전, 10년전에 받은 한차례의 사범 교육으로 급변
하는 사회 환경에 부응하리라고 믿는다면 우리 태권
도계의 장래는 결코 밝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이 요구하는 체육시설(도장)의 강사 요
건은 3급 사회체육 지도자 과정으로 충족해야 하지
만 새로운 사범상의 정립이라는 숙제는 계속 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범 교육 과정의 정립을 요
구하게 되는 것이다. **태권**

이라크의 침공으로 극적으로 쿠웨이트 국경 탈출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

—이해운 (쿠웨이트 사범)



『악몽같은 생지옥을 빠져나오게 지금도 실감나지 않는다』며 귀국 소감을 밝힌 이해운사범.

이사범은 쿠웨이트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다 이라크와 전쟁이 터지자 극적으로 쿠웨이트 국경을 탈출, 지난 8월21일 KAL 특별기 편으로 무사히 귀국했다.

전쟁이 발발한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8월 2일 아침, 태권도사범 일외에 현지에서 부인과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해오던 이사범이 아침에 가게문을 열려고 나가보니 시가지가 온통 이수라장이 되어있었다는 것.

사살된 군인들의 시체가 포크레인 위에 이리저리 걸려있었고 군인들이 시민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폭행하면서 거리는 온통 생지옥으로 변해 버렸다.

전쟁발발 3일후인 5일 아침에는 이라크군인 수십명이 이사범의 슈퍼마켓에 들이닥쳐 문을 부수고 진열해 놓았던 물건을 몽땅 쓸어버렸다고 한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교민들은 대사관의 지시를 받으며 가족단위로 모여 함께 생활하면서 탈출하기만을 고대하며 2주일을 버텨나갔다.

마침내 8월 17일 새벽 4시경 교민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 바그다드를 거쳐 요르단 암만까지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생지옥같은 전쟁통을 벗어나기

에 급급해 다른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한푼도 챙기지 못하고 물건을 구입하려고 가지고 있던 현금 몇푼만을 가지고 몸만 빠져나온 이사범은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안타까와 했다.

이사범은 지난 77년 출국, 모건 철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태권도사범으로 전향해 귀국하기까지 쿠웨이트인타내셔널클럽사범으로 일하는 등 14년동안 현지에서 태권도사범으로 활동했으며 태권도보급에 힘써왔다.

출국하기전에도 국내에서 태권도장의 사범으로 일하기도 했던 이사범은 현재 7단.

전쟁 2시간 전까지만해도 무력 침공을 하지않겠다던 이라크가 갑자기 공격한 것을 보고 이사범은 『쿠웨이트를 무시하고 도둑질한 처사』라며 분개하면서도 『역시 국력이 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쿠웨이트에 있을 때 한인회 사무총장 일을 맡았던 이사범은 지금 「쿠웨이트난민회」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쿠웨이트로 돌아가 재기해 보겠다』는 이사범의 말에 태권도인의 굳은 의지를 보는 듯 하였다. **태권**

현장을 찾아서

경기도 포천 • 산정호수 태권도 수련장
대전직할시 • 오현태권도장
경상북도 • 춘양국민학교



현장을
찾아서

1만 5천여평의
부지위에 연무관, 정신관, 야외수련장 등
갖춘 태권도 전문 수련장

— 산정호수 태권도 수련장 —



박준웅 관장

모든 시설을 태권도인에게 무료 개방

수련장의 모든 시설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재료를 구해 직접 자르고 메우고 만든
시설들이기에 다소 투박한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 모습에서, 배어있는 그의 피와 땀,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5리
서울에서 철원 쪽으로 약 한시간 반 거리에 있는
산정호수 밑에 태권도 야외수련장이 있다.

산정호수에서 흘러오는 맑은 시냇물을 끼고 1만5
천여평의 부지위에 연무관, 정신관, 야외수련장 등이
갖추어져 있는 태권도 전문 수련장이다.

『태권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부담없이
와서 수련도 하고 또 쉬어도 좋고, 가능한 많은 태
권도인들이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
이 수련장의 주인이자 관리인인 박준용관장(49세)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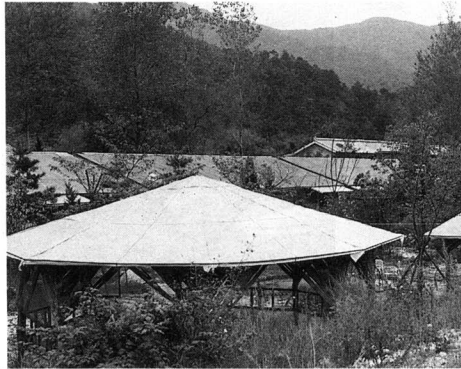
이 곳에는 야외수련장을 비롯한 실내수련장, 식당
과 숙소 등 기본시설 3개동 외에도 조그만 연못과
원두막이 있는 야외휴식터, 별장과 방갈로 10개동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수련장 뿐만 아
니라 휴식처로서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더구나 산과 시내, 넓은 모래밭 등 좋은 주변 경관
과 더불어 야외수련장으로서의 최적의 조건.

이 곳의 특징은 모든 시설을 태권도인들에게 무료
개방 한다는 것.

넓은 대지에 태권도 전문수련장을 지어놓고 비영
리로 운영한다는것을 알고는 다들 의아스럽게 생각
한다. 실제로 경관이 빼어난 산정호수 주변에는 현재
골프장과 호텔 신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

『과거에 운동할 때부터 구상을 해왔습니다. 넉넉
치 못한 태권도인들이 부담없이 수련할 수 있고, 또
태권도인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야외
수련장 건축이 꿈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박준
용씨가 30여년간 태권도에 쏟아온 외곽수적 열정 때
문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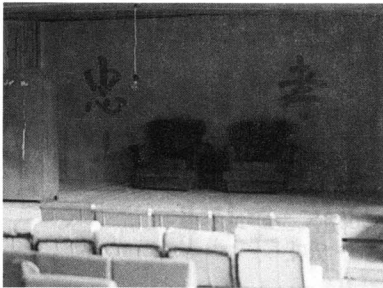


휴식처로서의 기능도 겸하는 수련장 주변의 부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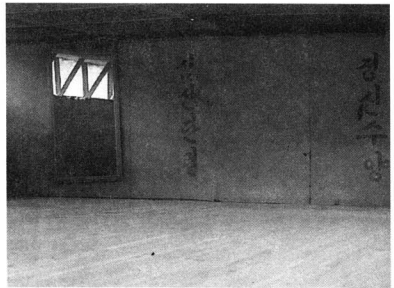
대에 들어서 점차 경제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재건축학
교를 폐쇄하고, 중고자동차를 구입, 1,000여명의 제
자와 후배들에게 자동차기술을 가르쳐 직업을 알선
해 주는 등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 결국 그들로 부터
수련장 건축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한다.

마땅한 재산도 없이 뜻만 가졌던 박관장이 이 수
련장을 건축하기 까지는 그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
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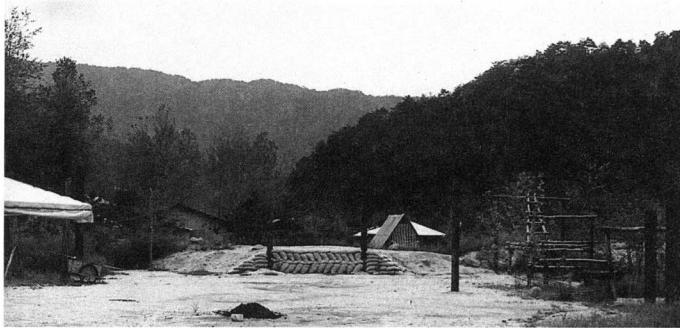
부지구입을 위한 자본 마련을 위해 3-4년간 전국
각지로 행상을 다니기도 한 그는, 『주변에서들 도와
줘 86년에 부지는 구입했지만 막상 혼자 해낼 재간
이 없읍니다. 그랬더니 포천읍에 있는 후배가 포크레
인을 보내주고 다른 후배가 목재를 보내주는 등 여
러 사람이 도와주었지요. 비록 제가 이 곳을 관리하
고는 있지만 저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 운천면 태권



정신관



연무관



야외수련장

도인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근 군부대에서 개최되는 군단 태권도대회시 지도해 주었던 인연으로 군부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수련장의 모든 시설에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재료를 구해 직접 자르고 메우고 만든 시설들이기에 다소 투박한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 모습에서, 배어있는 그의 피와 땀,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그는 하계와 동계수련으로 여름과 겨울철을 빼곤 사시사철 시설 보수작업에 몰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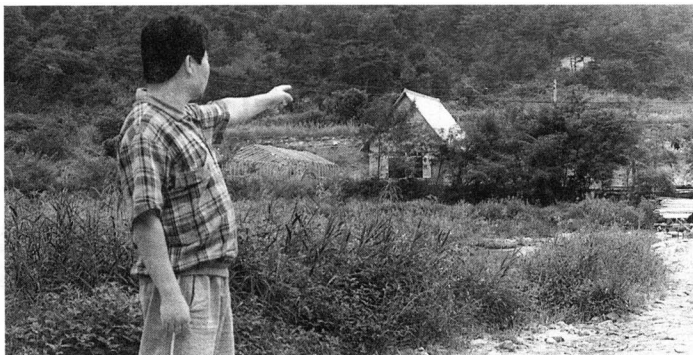
박관장이 태권도와 연을 맺은 곳은 수련장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운천리 일대의 유일한 태권도장 운천체육관.

이 곳에서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고 1967년부터 74년까지 8년간 3대(代)사범으로 지도해왔다.



임영선·사범과 박관장

이 운천체육관 역시 약간 특이하게 운영된다. 『운천체육관은 개인의 것이 아니고 운천면 태권도인 전체의 것입니다. 이 곳 운천리 토박이중 약 70~80%가 운천체육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물림을 받아 지도하다 후배가 성장하면 또 대를 물려주곤 해 현재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현재 4대사범으로 재직하고 있



별장너머의 부지에 종합체력단련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는 임영선사범(영북중고 코치)의 설명이다.

박관장은 67년도부터 운천체육관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학을 못하는 아이들을 모아 재건학교를 설립, 중고과정을 이수케했다. 80년

『88년 7월에 현재 시설로 개장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4년계획으로 시작했지만 수입이 없어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 상반기 까지 유희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3만여평의 부지에 취사실, 샤워장, 야외풀장 등 부대시설의 보완과 새로운 체육관과 유격훈련장과 종합체력단련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조경사업도 마무리 지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가 수련장에 쏟는 열정과 포부는 대단하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 따르는 어려움도 많다. 방대한 시설의 유지 및 보수, 기타 시설의 신축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

『주위에서들 수련장의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 이용료를 받도록 권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양한다』고 임영선사범은 말한다.

박관장은 『물론 남들이 보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나 자신도 고생이되긴 하지만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300 ~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방대한 시설을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는 듯. 저렴하게나마 이용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게 주변의 여론이다.

88년 7월 개장이후 주로 서울·경기 일원에서 약

60여개 학교팀과 도장에서 다녀갔다고, 주로 2-3일 머물고 가지만 길게는 하계훈련시 1개월씩 수련하고 가는 팀도 있다고 한다. 한번에 2개 도장 이상이 올 때도 자주 있는데, 서로 모르는 수련생끼리 도복을 입고 같이 뛰며 금방 친해지는 것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운천리에서 자동차로 약5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식사를 사먹을 곳이 없다. 식사는 준비해 와 직접 취사해도 되고, 위탁식사도 가능하다. 위탁식사는 찾아온 사람과 협의하여 그 가격에 맞춰 직접 해주지만 『‘밥사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꺼려진다』며 꺼릴 옷는다.

여름철이면 수련후 먹을 감을 수 있는 맑은 시냇가에 텐트를 칠수도 있다.

『수련장을 운영하며 많은 태권도인들을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고, 보람』이라는 박준웅 관장. 그는 아직도 태권도 3단이다. 태권도가 좋아 행하면 그만이지 단(段)이 그리 중요한 것이냐고 반문한다.

장차 태권도에 관한 자료를 모아 박물관식으로 자료전시관을 꾸며 보는것이 남은 희망사항이라는 그는 자연을 벗삼아 태권도 인생을 살아가는, 요즘 많지않은 태권도광(狂)이자 기인(奇人)이다.

산정호수를 뒤로하고 포천에서 의정부로 달리는 새 포장도로 주변의 황금뜰만이 신선하기만 하다.

연락처: 산정호수 태권도수련장(0357-32-6076) **태권**

대한태권도협회 '90 우수도장상 수상

대전

「오현 태권도장」



오노균 관장



대둔산 영주사와 자매결연

대전의 태권도 발전에 중추적 역할 담당

대전직할시에 소속된 많은 도장들 중에서 태권도 지도를 통해 생활 체육 확산에 이바지하고 모범적으로 도장을 운영하여 대한태권도협회 우수도장 표창을 받은 대전직할시 중구 유천동에 자리잡은「오현태권도장」을 찾았다.

대전 서부 상업지역에 위치한 오현태권도장 (관장 오노균 · 5단)은 1971년3월에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연인원 3천여명의 수련생과 5백여 유품단자를 배출한 이지역의 명소이다.

특히 오노균관장은 수련생 지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태권도 지도자가 되도록 후배 지도자 육성에 정성을 다해 후계자를 양성, 수원에 김태환, 홍민표, 권선황사범이, 대전에는 제일도장 조현도, 대신도장 민경배, 석사도장 이우영, 영무도장 박병진, 갈마도장 심용덕 사범이 태권도 발전에 앞장 서도록 하였다. 『오현이란 인, 의, 예, 지, 신을 지도덕목으로 정하여 어질게 청소년을 지도, 조국과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코자 명명 했다』며 도장명을 「오현태권도장」이라 정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오관장은 부인과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는데 아들의 이름을 도 「오현」이라 지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그는 현재 대전직할시 서구청 도시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기도 하다. 이렇게 바쁜 중에도 체육이론을 적용한 태권도 지도를 통해 수련효과를 높이고자 대학원에 진학, 체육학을 전공하기도 했다. 오현태권도장은 본인의 소유 3층 건물에서 1층은 컴퓨터교육원, 2층은 유치원 및 피아노학원, 3층은 태권도장으로 연건평 210평을 차지 하는 매머드 사회교육기관이다. 매주 토요일은 휴무하는 대신 컴퓨터 교육원을 전면 개방, 일요일까지 무료로 전수련생에게 지도하고 있다.

대전직할시협회의 이진수 전무이사는 『오관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강직한 지도자로 대전 태권도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오관장은 올해 대한태권도협회 우수도장상의 영광외에도 내무부장관표창, 체육부장관표창 각1회, 대전직할시장, 대전직할시 태권도 협회장상 등 수많은 표창기록을 갖고있다. 태권도 지도에 대한 열의에 못지않게 태권도의 학문적 연구에도 열의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박사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어학공부에 여념이 없다. **태권**

〈대전직할시협회제공〉



고시용교장

교육감기대회에서 우승한 태권도부선수들과 박호룡교사(왼
조현도코치(오른쪽))

태권도를 교기로 삼아 교육목표 실천 올해 경북교육감기대회 종합우승 차지

춘양국민학교는 봉화읍에서 40km떨어진 춘양면 소재지에 위치한 아담한 학교이다.

「참되고 바라며 꿈을 찾는 어린이」라는 교훈 아래 1910년 11월 18일 사립 광성학교로 개교한 이래 79회에 걸쳐 9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춘양국민학교는 개교이래 각종 시범학교와 연구학교로 지정되며 봉화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 고시용교장을 비롯하여 30명의 교직원인 19학급으로 편성된 700여명의 국민학생과 80여명의 유치원생을 사랑과 정열로 지도하고 있다.

1990년 3월에 춘양국민학교는 교육목표의 실천사업으로 태권도를 교기로 삼았다.

고기선정 이후 제2회 경북소년체전에서 봉화군 대표선수로 출전하여 이현교 어린이가 페더급 우승을 차지하고 단체종합3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지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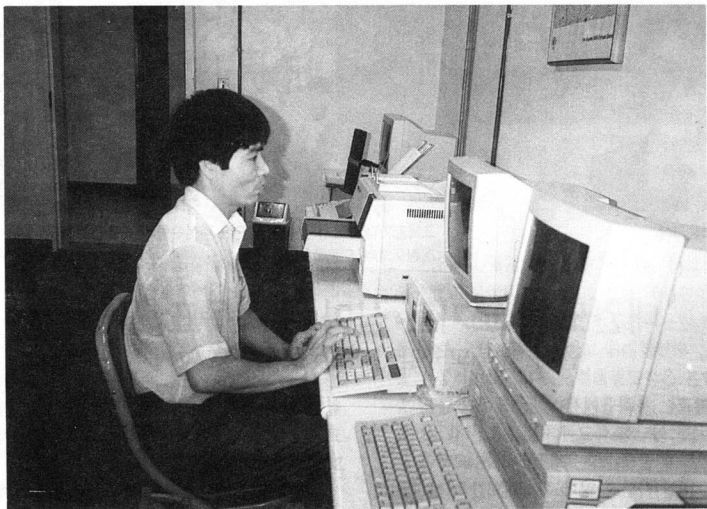
월 19일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3회 경상북도 교육감기타기단체대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도내 초등부의 강팀으로 부각하였다.

춘양국민학교가 태권도 강팀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선수육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않은 조현도코치(화랑체육관 관장)와 박호룡 체육주임의 적극적인 뒷받침, 특히 고시용교장의 격려와 교육협의회 임원들의 협조가 있었고 태권도선수들의 학업과 훈련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격려해 준 교직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

오늘도 미래의 태권도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춘양국민학교 태권도부선수들은 조현도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더욱더 큰 태권도 기합소리를 외치며 수련에 맘을 흘리고 있다. **태권도**

(경북 신용우 편집위원)

태권도인으로서 제9호 1급 경기지도자 -김종연



이번 교육을 통해 컴퓨터 활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김종연씨.

3월 5일부터 9월 28일까지 7개월 간에 걸쳐 한국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1급경기지도자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김종연씨(화랑체육관 관장)는 태권도인으로서는 사실상 9번째로 1급경기지도자가 될 전망이다.

1급경기지도자는 전공목에 걸쳐 지금까지 총 65명이 배출되었는데 태권도는 그동안 8명이 자격증을 획득했다.

11월7일에 실시될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김종연씨는 “태권도인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교육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여 중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수련해왔고 이후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생활 등으로 20여년을 태권도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생들 앞에 나설 때면 태권도지도에 대한 지도방법이나 지도이념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껴왔습니다.

「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를 알고자하여 이번 교육에 참가신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교육에 임하면서 특별히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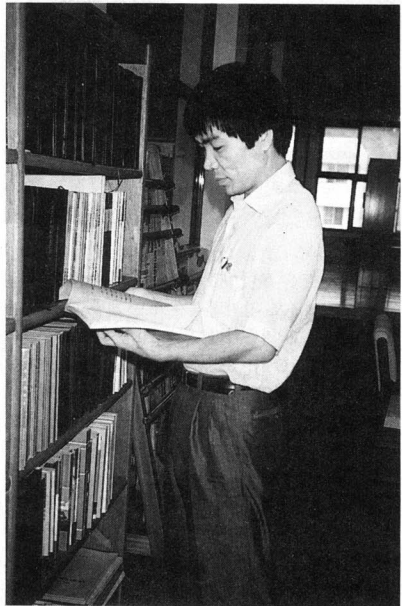
▲우선 연수기간이 7개월인데다가 강의시간이 오후 1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수련생 교육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교육을 사범에게 전달시켜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교육을 꼭 받아야만 하겠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첫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막상 지원서를 제출코자 하니까 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1급경기지도자교육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현장팀의 지도자에게 우선권을 주려는 협회의 입장때문에 추천서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팀지도자나 도장 운영자나 태권도지도자라는 입장에서 차별없이 선발고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을 받게되자 본인을 비롯한 교육생들이 각 종목별 국가대표코치나 감독, 전임지도자 등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대표급 지도자들이라 책상에 앉아 이론강의 등을 듣는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총31명이 입학했는데 중도에 몇명이 탈락하고 현재21개 종목에 2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2급경기지도자교육과 1급경기지도자교육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급과 2급교육은 우선 교육과목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2급 교육은 체육학 분야의 기초영역의 교육만을 이수하고 있는데 비해 1급 교육은 전공(1), 즉 기초전공영역에서 전문응용 등의 체육영역으로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리역학적인 실험실습연구의 현장활용을 위한 인접과학 학문분야와 전산 및 통계학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종목별 현장에서의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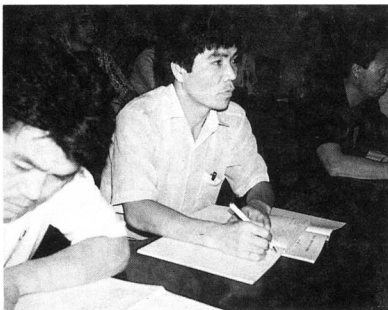


논문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으려.

과학 이론의 실용 및 응용을 통한 전문지도자의 과학적인 능력배양에 교육의 중점적인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1급교육은 7개월 동안 총840시간을 이수하게 되는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교과목을 소개하면 교양(국어, 영어, 과학개론, 국사, 철학개론, 컴퓨터개론), 전공 I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세미나 및 특강), 전공 II (트레이닝론, 연구법, 코칭론, 스포츠의학, 건강교육, 스포츠영양학), 실습(컴퓨터 실습, 현장실습), 외국어(영어회화, 스포츠 전문용어)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이 끝나면 현장실습과 졸업논문을 제출하고 11월 7일에 국가검정고시를 보게 됩니다.



교육을 통해
배운 스포츠이론과
그동안 선수, 지도자,
심판원으로 활동하며 체험한
지식을 살려
사회체육으로서의
태권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편 일선 태권도 선수 지도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지침서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중

— 졸업논문은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고교태권도 경기력평가 척도 개발」이라는 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선수들의 경기력을 예측할 수 있는 측정방법과 기준치를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선수선발 및 훈련을 위한 지도의 방향과 각 선수 개인별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도하기 위하여 이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논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연구원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태권도 중주국으로서 참고해야할 논문이 너무 부족한데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체육과학원이 체육이론연구의 산실답게 종목별 참고도서 및 연구논문이 비치되어 있으리라 여겼으나 불과 3편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대학 도서관 등을 쫓아다니며 논문들을 보았는데 태권도관계 논문 대부분이 석사학위논문 등으로 이론에 췌어 맞추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많아 직접적으로 선수들의 경기력강화나 도장운영 등에 도움을 줄만한 내용이 적었습니다. 앞으로 태권도 중주국답게 태권도 연구에도 태권도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 교육을 받으면서 얻은 가장 큰 효과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태권도 지도자로서 지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특히 최첨단 기자재를 이용한 스포츠과학이론을 기술분석 등으로 운동에 과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전문적인 스포츠과학이론이 겸비된 상급수준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운 스포츠이론과 그동안 선수, 지도자, 심판원으로 활동하며 체험한 지식을 살려 사회체육으로서의 태권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편 일선 태권도 선수 지도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지침서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팀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던 연구원에서 이론과 실습 등을 통해 배운 지식을 적용해 양에 의한 훈련이 아닌 질에 의한 훈련으로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고 싶습니다.

— 끝으로 1급경기지도자교육을 받고자하는 사범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를 위한 교육의 투자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태권도 사범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우선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전문적인 학문의 수용능력에도 걱정이 앞서 제 자신 또한 어렵게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배우고 느낀 것은 어느 누구라도 이 교육을 받으면 절대 후회는 없으리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태권**

딸애의 품띠

글 · 양귀자

일년여의 수련을
받는 동안
아이는 눈에 띄게
당당해지고 절도
있게 행동하였다.
태권도의
폼새도 처음의
쭈뼛거림에서 벗어나
쭉쭉 뻗어 가고
매워졌다.

깊은 밤중,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깨어 있다 보면 종종 밤거리에서 들려 오는 청년들의 힘 자랑 소리에 일손을 멈추게 된다. 생각대로 실마리가 술술 풀려 나오는 밤일인 경우에는 밤거리의 소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글쓰기에 열중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이면 밖의 풍경을 상세히 알아보고 싶어 슬쩍 창문을 열기도 한다.

힘 자랑이라니 무슨 씨름판 같은 것을 연상할지도 모르겠으나 심야에 그런 일이 있을 턱이 없고 쉽게 말하면 패싸움, 혹은 세력 다툼이 대부분인 것들이다.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주먹 다툼에는 언변 좋은 것이나 지성적인 사고방식이 소용없는 법이다. 완력이 세고 동작이 민첩하여 한 번이라도 더 주먹을 날리는 쪽이 밤거리의 승자이다. 그런 싸움들은 대개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기 마련이고 당한 쪽은 신음 소리와 함께 쓰러린 굴욕감만 얻어가질 뿐이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하나뿐인 내 아이는 태권도 학원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 중이다. 힘 자랑에서 지는 쪽 아들을 두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어머니들이 대개 태권도장을 선호한다는데 나는 결코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 자신 있게, 당당히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명료하다. 내 아이는 아들이 아니요, 인형놀이에 소꿉놀음만을 즐기는 딸인 까닭이다.

그 딸아이가 얼마 전 태극 8장까지를 완전히 소화하여 1품 심사를 받았다. 성인으로 치면 1단 심사인데 15세까지는 '폼'이라 부르며 띠의 색깔도 검정과 빨강이 반반이다. 이제 여섯 살짜리가, 그것도 여자가 하면 얼마나 하라 했는데 일년여의 수련을 받는 동안 아이는 눈에 띄게 당당해지고 절도 있게 행동하였다. 태권도의 폼새도 처음의 쭈뼛거림에서 벗어나 쭉쭉 뻗어 가고 매워졌다.

그간의 띠 심사는 줄곧 학원에서만 받았었지만 폼 심사는 달랐다. 국기원에서 파견 나온 심사위원들이 인근 국민학교 강당에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면밀히 주목하였다. 떨어진들 어떠랴, 하는 심정이었는데도 아이나 나나 그렇게도 마음이 초조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딸애는 학원에서의 최종 연습 도중 뺨을 다쳐서 약간 부어있는 상태였다. 겨루기 연습이

이제 열다섯 살이
 되면 온전히
 검은 띠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엄마가
 왜 태권도를
 배우게 했는지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온유함과 비굴함이
 왜 다른지,
 밝은 웃음과 검은
 웃음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눈치챌는지도
 모를 일이다.

었는데 상대가 된 남자가 어찌나 사정없이 발차기를 해 대는지 얼굴을 여러 차례 채고 말았다. 그래도 눈물을 보이면 감점이라는 사범의 엄중한 호령 때문에 딸애는 이를 악물고만 있었다. 두들겨 맞는 딸애를 보자니 나 역시 괴로웠다. 여자애인데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 상대 녀석이 미워지기까지 하는 것을 느끼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었다. 여자니까, 약하니까, 싸움을 못 하니까, 등등의 이유로 세상살이에서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말라는 이유로 딸애를 태권도 학원에 집어넣은 나였다.

어쨌거나 1품 심사는 무사히 끝났다. 딸애는 품새 심사에서는 거의 완벽했고, 겨루기에서는 뒤차기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또 서너 번의 위기를 맞았었다. 그랬지만 악착같이 덤벼서 제법 세련된 발차기 솜씨를 과시했고 구령 소리 등이 봐줄 만하였다. 다른 남자애들에 비해 결코 뒤질 만한 실력은 아니었으므로 딸애 순서를 끝낸 내 마음은 한결 느긋해졌고 비로소 강당 내의 다른 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강당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해 보이는 중고생들도 있었다. 기합도 우렁찼고 겨루기에서는 퍽퍽 소리가 어찌나 큰지 보기에 도 아슬아슬할 지경이었다. 그 모양을 보자니 강당 바깥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던 이유를 알 듯도 싶었다. 순서를 마치고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는 코피를 흘리는 애도 있고 눈두덩이 부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모두들 씩씩하고 활기찬 표정들이었다. 한바탕 겨루기를 끝내고 마약 자리로 돌아오던 어떤 고등학생은 도복을 입은 딸애의 모습이 귀엽다고 환하게 웃었다. 웃는 모습이 온화롭고 밝았다. 무서운 속도의 발차기와 엄청난 힘의 내치르기 솜씨를 지닌 태권도 유단자의 웃음은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아니, 힘있는 자, 자신만만한 자의 웃음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맞을 것이다. 밤거리의 어둠을 틈타서 마음껏 폭력을 휘두르고 사라지는 자들의 검은 웃음은 그런 모양이 아닐 것이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성이나 합리적인 사고가 결여된 그런 폭력이 횡행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태권도 심사장에서 만난 웃음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딸애를 태권도 학원에 입학시키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다. 온유와 비굴의 차이는 결국 힘의 강약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다. 힘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다. 하지만 힘없는 자의 온유함이란 기껏해야 비굴함의 속임수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물론 강한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비굴함을 넘어섰다고는

하나 방약무인해지는 힘의 과시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태권도를 비롯한 모든 무예는 정의를 목표로 정진하는 것이 진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합이나 겨루기에도 엄격한 규율이 있고 무예의 수련 외에 정신 교육도 독특하게 병행되는 게 보통이다. 이 모든 게 다 진실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서라고나 할까.

그리고 얼마 후, 딸애는 자격증에 앞서 품띠부터 받았다. 합격을 확인 해 주는 첫번째 징표인 것이다. 붉은 색, 검은 색이 반반인 품띠에는 아이의 이름이 새겨 있다. 이제 열다섯 살이 되면 온전히 검은 띠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쯤이면 엄마가 왜 태권도를 배우게 했는지 어렵듯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온유함과 비굴함이 왜 다르지, 밝은 웃음과 검은 웃음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눈치챌는지도 모를 일이다.

조간이나 석간이나, 오늘 역시도 신문의 사회면에는 어김없이 방약무인한 폭력의 결과가 기사화되어 세인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고 있다. 힘센 사람은 많아도 온유하고 밝으면서 당당하게 강한 사람은 드물다. 일 당백(一當百)이라고 하던가, 혼자서 얼마든지 때려 눕힐 수 있는 엄청난 힘만 있다 하여 자만할 일이 아니다. 힘없는 자를 때려 눕히는 주먹은 부끄러운 주먹이다. 부끄럽지 않은 주먹은 때려 눕히는게 아니라 누운 자를 일으켜 주는 주먹이다.

딸애의 품띠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본다.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정신적인 폭력 또한 마땅히 온유함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기가 마땅한 진리가 어디 마땅하게만 되어가는 세상이던가…….

■ 「딸애의 품띠」는 양귀자씨의 수필집 『따뜻한 내집 창밖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에 실린 것으로 저자의 승낙을 얻어 게재한 것입니다. ■ **태권**

힘없는 자를 때려
눕히는 주먹은
부끄러운 주먹이다.
부끄럽지 않은
주먹은 때려
눕히는게
아니라 누운 자를
일으켜 주는
주먹이다.

양귀자

작가약력

- ▲ 1955년 전주 출생
- ▲ 78년 월간『문학사상』신인상 당선
- ▲ 85년 소설집 『귀머거리새』출간
- ▲ 87년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출간
- ▲ 88년 수필집 『따뜻한 내집창밖에서 누군가 울고 있다』출간
- ▲ 89년 소설집 『지구를색칠하는 페인트공』출간